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식·학술회의

때 : 2014년 6월 10일(화) 오후 2시~5시

곳 : 다래헌(서울 마포구 동교동 184-24번지,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

주최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백광운(채찬)의 백서농장 경영과 재만무장투쟁 - 백광운의 무장활동을 중심으로

김병기(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1. 머리말

대일항쟁기 우리의 항일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무장투쟁, 외교활동, 실력양성론, 의열투쟁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일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무장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장투쟁의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전략은 ‘독립전쟁론’이다.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제가 중국, 소련, 미국 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이에 참가하여 對日戰爭을 통해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략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기지는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북만주를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 설립되었다. 이들 지역에서 한인 교민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 바탕위에 국내외의 한인청년들을 모아 무관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서간도지역에는 1911년부터 유하현을 중심으로 교민 자치단체가 세워졌다. 경학사-부민단-한족회가 그것이다. 이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근대적 교육기관과 무관학교를 겸한 신흥강습소-신흥중학-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10년 동안 3천 3백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고, 이들은 만주 독립군의 근간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이라는 일종의 군영(軍營)을 결성하고 병농일치의 무장투쟁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3.1운동 이후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의 중심이 되었고, 나아가 경신참변 후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통군부-통의부로 명칭을 달리하면서도 오직 무장투쟁에만 열중하다가 임시정부 직할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이하 참의부)를 결성하고 남만주 무장투쟁을 선도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은 1914년 시작된 백서농장 성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결성한 백서농장의 성격을 살펴보고, 3.1운동이후 남만주지역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의 흐름을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려고 한다. 본 발표에서는 백광운의 무장활동을 중심으로 졸업생들의 무장투

쟁 단면을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신흥학우단과 그들을 중심으로 경영되었던 백서농장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서로군정서 의용대, 경신참변 이후의 남만통일회의와 통의부 결성, 그리고 통의부 갈등과 참의부 결성을 살펴보고 한다. 이러한 무장단체들의 계통을 연결하면 바로 남만주지역의 무장독립운동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신흥학우단과 백서농장

1) 신흥학우단의 활동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을 중심으로 신흥학우단이 결성되었다. 신흥학우단은 1913년 5월 6일 합니하에서 창단되었는데,¹⁾ 신흥강습소의 교장 여준, 교감 윤기섭 등과 제1회 졸업생인 김석, 강일수, 이근호 등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신흥강습소의 교직원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교직원과 졸업생은 정단원이 되었고 재학생은 준단원이 되었다. 신흥학우단에서는 기관지인 『신흥학우보』를 간행했다.²⁾ 주필 겸 편집부장에는 신흥학교 1회 졸업생인 강일수가 맡았고, 그 외에 신흥학교³⁾ 졸업생인 이동화, 장정근 등이 기자로 활동했다. 『신흥학우보』는 군사, 시사, 문예 등 다양한 기사를 실어 단원들에게 혁명이념의 선전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⁴⁾

신흥학우단은 ‘강력한 혁명 청년의 결사로서 동삼성 독립운동 초기의 핵심조직이 되었으며 일반 민중이 큰 기대를 가졌다.’⁵⁾는 평가처럼 실전에 참가하지 못하던 졸업생들의 핵심 조직체가 되었다. 여기에서 발행되던 『신흥학우보』는 국내와 만주지역은 물론 미주와 러시아 연해주지역 등 해외에도 배포되어 남만주 독립운동계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고, 신흥강습소 선전에 크게 기여하였다.⁶⁾ 신흥학우

1) 《신흥교우보》제2호, 91-92쪽.

2) 신흥학우단의 이전 명칭은 ‘신흥교우단’이었고, 여기에서 《신흥교우보》를 발행하였다. 신흥학우단의 처음 명칭은 ‘다물단’이었고(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16쪽), 이후 ‘신흥교우단’, ‘신흥학우단’으로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1911년 6월 삼원포 추가가에서 설립될 당시 명칭은 신흥강습소였다. 통상 1911년 삼원포 추가가에서 세워진 초기의 학교를 신흥강습소로, 1912년 통화현 합니하의 학교는 신흥학교 혹은 신흥중학으로, 1919년 3.1운동이후 고산자에서 세워진 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도 인용 자료에 따라 신흥강습소 외에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4)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7, 345쪽.

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8, 54쪽.

6) 장세운, 「신흥교우단의 기관지 <신흥교우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6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413쪽.

단의 조직은 초대 단장에 김석, 총무부장 이근호, 편집부장 강일수 등이었다.⁷⁾

신흥학우단은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정했다.⁸⁾

- 다물의 원동력인 모교의 정신을 후인에게 전수하자.
- 겨레의 활력소인 모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자손만대에 살린다.
- 선열 단우의 최후 유족을 정중히 받들어 힘써 실행한다.

또한 신흥학우단은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⁹⁾

1. 군사학술을 연구하여 실력을 배양한다.
2.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혁명 이념의 선전과 독립사상을 고취한다.
3. 민중의 자위체를 조직하여 적구 침입을 방지하고
4. 노동강습소를 개설하여 농촌 청년에게 초보적 군사훈련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5. 농촌에는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신흥학우단에서는 학술 연구, 선전 활동 뿐만 아니라 농촌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담당하였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독립군에 편성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지방에 파견되어 2년간 의무적으로 교편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재만한인 사회는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지방 소학교에서는 신흥학교 졸업생을 교사로 선호하여 요청이 쇄도하였다. 졸업생들은 서간도 지역 뿐 아니라 장백, 화룡, 연길, 왕청, 훈춘 등 북간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파견되었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지방 소학교에 배치되어 학교운영과 지역계몽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주간에는 아동교육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지방청년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일단 유사시 병력 보충에 대비하였다.¹⁰⁾ 신흥학우단은 신흥학교 졸업생의 친목과 단결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서간도 한인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한인자치 향상과 항일 독립운동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다.¹¹⁾ 신흥학우단은 이후 백서농장이라는 軍營을 설치할 때 그 중심체가 되었다.

7)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17쪽. 한편 김승학은 초대 단장 이근호, 총무부장 김동삼, 학우보 주필 강일수, 기자로 이동화 장정근 외 15명이라 했다. (김승학/김국보, 『한국독립사』, 독립동지회, 1983년 개정판, 382쪽)

8) 《신흥교우보》 제2호, 91쪽.

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17쪽.

10)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25쪽.

11) 윤병석,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1, 81쪽.

2) 백서농장 경영

경학사 해체 이후 결성된 교민 자치단체 부민단과 신흥학우단은 1914년 봉천성 통화현 제8구 관할 팔리초 오관하(五管下)¹²⁾ 쏘배차(小北) 심산유곡에 ‘白西農庄’을 건설하였다.¹³⁾ 백두산 서쪽 산록에 있다하여 백서농장이란 명칭을 붙였고, 유장(酉庄)이라는 명칭 또한 서쪽 농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백서농장에는 신흥학교 졸업생 가운데 1회에서 4회가 주축이 되었고, 각 분·지교에 설치한 노동강습소 등에서 양성한 독립군을 합하여 모두 385명이 모였다. 백서농장은 실제로는 독립군 軍營이지만 내외의 이목을 고려해 농장이란 이름으로 불렸다.¹⁴⁾

이 지역은 백두산 서편 산기슭 사방 2백리의 무인지경인 고원 평야지대였다. 도로는 생각지도 못했고, 오소리·산돼지·곰·노루가 다니는 길로 동북으로 7~8백리 떨어진 길림성 돈화현에 있는 황화송전자(黃花松份子)의 마적 소굴에서 마적 대부대가 일 년이면 4~5차례나 내왕하는 길목에 있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백서농장이라는 군영이 만들어진 것은 신흥학교 졸업생들의 독립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무관교육을 마친 후 독립을 위해 즉각 싸울 것을 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중·일전쟁 혹은 미·일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을 구축하고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려 계획하고 있었다.¹⁵⁾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위세는 더욱 강해졌다. 이들은 쏘배차 험산 유곡에 막사를 구축하고 1914년 가을부터 벌목을 시작하여 스스로 밭갈고 나무짐을 지는 간난고초를 겪으면서 1915년 초에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대 군영을 형성했던 것이다.¹⁶⁾ 이곳에는 장주실(庄主室)·훈독실(訓督室)·총무실·의무실·경리실·수품실(需品室)·농감실·교도실·교관실·강당·중대장실·소대장실·치료실·식당실·취사실·창고 및 각대 병사실 등이 배치되고, 둘레에는 호를 파고 건물을 지어 전초 막사로 사용하였다.

백서농장은 장주에 김동삼, 훈독 양규열, 총무 김정제, 의무감 김환, 경리 김자순 등으로 교민 자치단체인 부민단 계열 인사들이 지도부를 담당하였다. 그 외 농감 채찬, 교관 허식·김영운·김동식·강보

12)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한국사연구》111, 2000, 35쪽.

13) 윤병석, 『독립군사』, 94쪽 참조. 필자 미상의 수기 「제9항 백서농장사」에는 1914년 가을부터 6개월 동안 터를 잡고 건물 등을 지어 1915년 봄 무렵에 입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승학(김승학/김국보, 『한국독립사』, 381쪽)과 원병상(원병상, 『신흥무관학교』, 26쪽)은 백서농장의 설립을 191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14) 윤병석, 『독립군사』, 94쪽.

15)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41쪽.

16)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2쪽.

형, 교도대장 이근호, 1중대장 안상목, 2중대장 박상훈, 3중대장 김경달, 규율대장 신용관 등은 모두 신흥학교 졸업생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백서농장의 운영은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훈독, 총무, 의무, 경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지도부에서 담당하였고, 실무적인 운영의 편제와 운영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었다. 백광운은 백서농장에서 농감(農監)의 직책을 맡았다. 단전제로 운영된 운영의 경영을 위해 장주의 지휘아래 농감이 실질적인 책임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농감 아래 같은 졸업생으로 구성된 교관단과 교도대장, 규율대장의 조직과 함께 1, 2, 3 중대의 편제에 따라 각 중대장이 지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짧은 여름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했는데, 부족한 양식은 식량운반대를 두어 수백 리 먼 곳에서 통강냉이·조·소금 등을 사서 짊어지고 왔다. 또한 겨울철에는 스스로 벌목을 하여 땔감을 마련해야 했고, 세탁은 물론 감발과 짚신, 의복도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만 했다.¹⁸⁾

이러한 백서농장의 주축을 이루었던 신흥학교 졸업생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무엇보다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이 그들을 위협했다. 심산유곡에서 식량을 제대로 조달하기가 어려워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져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때문에 훈련과 교육에 지장이 심각했고, 농사와 작업도 더 이상 해나가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동포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고 최후로 30여 명이 남았다.

극한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의 의기는 대단했다. 교관이었던 허식(허영백)의 경우 1917년 가을 열병으로 앓아누웠는데, 3개월 반 동안 세 차례나 재발하여 반신불수 상태에 빠졌다. 변소 출입도 할 수 없어 신광재, 백광운 등 여러 동지들의 등에 업혀 다녀야 했다. 그가 사경에 처하자 농장의 결정에 따라 출영 치료를 권고 받았으나 여러 날 고집을 부려 병세가 더욱 위독해졌다. 부득이 유하현 삼원포에 있는 왕삼덕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1년 여 만에 겨우 회복이 되었다.¹⁹⁾ 백서농장을 개설한지 만 4년이 되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 독립의 열기가 활기를 띠게 됨으로써 부민단의 뒤를 이어 설립된 한족회 의 총회 지시로 농장은 폐지되었다.

3. 서로군정서의 결성과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

1) 서로군정서의 결성

17) 이 가운데 신광재(신용관)와 백광운(재찬)은 경신참변 후 남만주지역에 남아 친일단체들을 구축하고 이른바 서로군정서 의용대(중대)라 칭하고 무장투쟁의 역할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4쪽.

19)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46쪽.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와의 강력한 항전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성격의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단이 재정비되거나, 새로운 결성을 통해 독립운동의 열기가 활발해졌다. 서간도지역의 교민 자치단체인 부민단에서는 자신계와 교육회 등을 통합한 후, 발전적 해체를 통해 4월 초에 한족회를 결성하였다. 한족회에서는 일제와 대결하여 조국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독립운동을 통제, 지도하는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느껴 이를 담당할 ‘군정부(軍政府)’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상해에 임시정부가 성립됨에 따라 군정부의 명칭이 문제가 되었다. 한족회와 군정부는 윤기섭을 대표로 상해에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통일하는 방안을 제의하였다. 타협안은 1919년 11월 17일 임시의정원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군정부의 명칭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서로군정서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²⁰⁾

독판부	독판	이상룡	학무사 사장	김형식
	부독판	여준	법무사 사장	김응섭
정무청	청장	이탁	군무사 사장	양규열
내무사	사장	곽문	참모부 부장	김동삼
재무사	사장	남정섭	사령부 사령관	이청천

서로군정서의 부대편성은 처음에는 최소한 4개 중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이들 중대는 신흥 무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조직된 서로군정서에서는 처음부터 무력을 통해 국내로 진입,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노선은 외교를 강조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서로군정서에서는 1920년 초 윤기섭과 이진산을 상해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이미 임시의정원 의원 자격으로 상해에 도착해 있던 왕삼덕·이유필·김홍서 등과 함께 군사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고 군사기관을 만주에 설치할 것과 금년 내에 혈전을 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²²⁾ 그러나 이러한 독립전쟁론은 상해 임시정부에 표면적으로는 수용되었으나 결국 실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투쟁노선의 차이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1920년 겨울 박용만·신숙 등이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여 군사통일회의를 개최하자²³⁾ 서로군정서는 이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293쪽과 박환,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33쪽 참조.

21) 한국독립유공자협회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257쪽. 서중석은 이상룡과 김학규의 기록을 인용하여 각각 2려(旅)와 2개 연대 6개 대대로 조직되었는데, 실제 병력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22) 《독립신문》1920년 4월 3일자.

23) 이 군사통일회의는 임시정부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그 정치 노선과 정략에 반대하는 인사들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17명이 각각 소속 단체를 대표하여 북경에 집결하여 구성되었다.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5, 107쪽.)

진산·송호·성준용 등을 파견하였고, 1921년 4월 27일에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서로군정서에서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20년 초반이 되면 이미 교민들의 독립운동 열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부금 징수로 교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대한독립단 등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군자금의 모집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큰 직접적 요인은 일제의 압력과 이에 따른 중국 당국의 탄압이 군자금 모집을 어렵게 하였던 것인데,²⁴⁾ 이러한 상황은 1920년 5월 ‘중·일 합동수색대’가 편성되어 서간도지역에 일본군이 침략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로군정서에서는 의용대를 조직하여 만주와 국내 각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압록강 대안지역인 강계·삭주 등지에 들어가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유격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2)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

남만주지역의 독립군단은 3.1운동 이후 1920년 초에 걸쳐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오래가지 못하고 1920년 10월 일본군의 독립군 ‘초멸’을 위한 만주침략과 그를 잇는 경신참변(간도참변)으로 일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제는 조선군과 포조군(浦潮軍), 그리고 관동군을 앞세워 만주지역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러한 경신참변에 앞서 남만주지역에서는 일제의 획책에 따른 ‘중일합동 수색대’라는 독립군 토벌대가 조직되어 1920년 5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토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간도침입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각지의 독립군단들은 독립군의 역량을 보전하기 위해 抗戰 대신 避戰을 택하고 백두산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군정서도 신흥무관학교 학생으로 敎成隊를 편성하여 이청천의 인솔 하에 백두산 북쪽인 안도현 삼림지대로 피전을 결정하였다.²⁵⁾ 이들은 이동 중 안도현에서 홍범도 부대와 합류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독립군단의 대표들이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한 후 1921년 초 러시아 이만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일부 독립군부대는 북만주로 되돌아오고 계속 北征한 주력부대는 그 해 3월 자유시에 도착하였다가 이른바 ‘자유시참변’을 맞게 되었다. 자유시참변으로 수많은 인명을 잃은 독립군들은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만주일대로 돌아왔다.

2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168쪽.

25)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55쪽.

한편 서로군정서의 본부는 액목현으로 이동하였는데, 신광재(신용관)²⁶⁾, 백광운(채찬) 등이 지휘하는 잔여 병력은 남만주에 그대로 머물면서 일본군의 대부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활동을 재개하였다. 서로군정서는 경신참변 후 본부가 있던 액목현에 집결하여 다시 군정부 수립에 착수하였다. 1921년 5월 임시정부 군무부장인 황학수를 영입하고 박용만을 총사령관에 선임하여²⁷⁾ 서로군정서 의용대를 재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군정서의 편제를 위원제로 개편하고, 참모장에 황학수를 임명하여 남만주 일대의 일제기관 파괴와 친일파 처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총사령관에 선임된 박용만이 국내에 들어가 일제에 매수되어 친일파로 변절했다는 여론이 돌아 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황학수도 추천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참모장 직을 사임하였다.²⁸⁾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박용만의 후임으로 전 서로군정서 사령관이던 김창환을 다시 임명하고 전력을 정비하였다. 그는 각지에서 분립하여 활동하면서 반목하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기 위하여 힘쓰던 중 1922년 봄 환인현에서 '남만통일회'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신참변 후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남만주지역의 독립군들은 1921년 초부터 보민회·조선인민회 등 친일단체들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인물은 신광재와 백광운, 김소하(장기초) 등으로 이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 소속이었다. 신광재는 경신참변 직후 신흥무관학교 동창생인 백광운 등과 무장대를 결성하여 친일파 숙청에 주력하였으나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1921년 8월 病逝하였다. 이상룡의 아들 이준형은 이상룡의 행장인 '선부군 유사(先府君 遺事)'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²⁹⁾

이해(1920) 봄에³⁰⁾ 임강현의 의용대장 신광재의 부음을 들었다. 신광재는 병학(兵學)에 통달하고 사람을 거느리는 재능이 있어 중진의 관방장이 되었는데 이때 와서 진중에서 병들어 죽었다. 부군(이상룡-필자주)은 슬픔이 심하여 글을 지어 사람을 대신 보내어 제사지내고, 백광운으로 그 소임을 대신 맡겼다. 뒤에 김창환을 보내어 그 군사를 통령(統領)하게 하였다.

신광재가 병서한 이후에는 백광운과 김소하 등이 집안현과 통화현 등지를 중심으로 무장활동을

26) 일제 자료에 辛光在로 나타나는 인물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백서농장에서 규율대장을 역임한 光濟 辛容寬이다.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263쪽).

27) 채근식, 『무장독립운동사』, 125쪽.

28) 황학수, 『夢乎 回顧錄』(필사본) 참조.

2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경인문화사, 2008, 608쪽.

30) 이 기록은 이준형의 착오로 보인다. 신광재(신용관)은 1921년 8월 작고한 것으로 《독립신문》의 '순국 장병 명단'에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한 병사(病死) 날짜로 생각된다. (《독립신문》1922년 8월 29일자 참조)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이후 통의부 의용군의 주력부대였던 제1중대를 형성하였다. 한편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임강현 등지에서 활동하던 신판재가 지휘하는 150여 명의 군대는 3隊로 나누어 집안·통화·두도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편 오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³¹⁾ 이들은 1921년 5월 중순경에는 노령으로부터 장총, 단총과 탄약을 구입하여 더욱 증강된 전력을 갖추었다.³²⁾

남만주 독립군들은 향후 남만지역의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체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절감하고 대표를 파견하여³³⁾ 통합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들은 우선 만주지역의 수복 문제를 담당할 책임위원을 선정하였는데 그 주요인물은 다음과 같다.³⁴⁾

1921년부터 1년여 동안 보민회·조선인민회 등 친일단체의 토멸에 전력하여 온 독립군들은 대다수 지역에서 이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남만주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재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유력한 독립운동단체인 서로군정서·한족회·대한독립단 등의 간부들이 이를 경축하기 위해 회합을 갖고 과거의 게릴라전을 청산하고 당당한 군단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의견합의를 보게 되었다.

이 무렵 광복군총영에서 활동하던 이관린이 국내로 들어가 양기탁을 인도하여 渡滿하면서 서간도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³⁵⁾ 이에 따라 각 단체 간에 남만주지역 독립운동 기관의 통일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선전공작대'를 편성하였다. 통일위원회는 지도위원장에 양기탁을 선임하고, 선전공작대장 전덕명,³⁶⁾ 선전대원 김관성·김창희·고할신 등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協贊 전덕원·이용해를 선전공작대로 보임하고 2-3개월 간 선전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환인현 河溝에서 한족회·대한독립단·광한단·한교민단·평안북도독판부·광복군총영 등의 대표자가 남만통일회를 중심으로 회합하여 '大韓統軍府'를 결성하기

31) 김정명, 『조선독립운동』(2), 1015쪽.

32) 한국독립유공자협회편,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296쪽.

33) 각 단체의 대표는 다음과 같다(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5, 342쪽.)

대한독립단	전덕원·김용보	평북독판부	김승만·신언갑
광한단	현정경·고할신	광복군총영	박태열·장철호
한교민단	김우근·김종식		

34) 김승학, 『한국독립사』, 343쪽

총지휘	이용해	사 법	현정경
참 모	전덕원	연 락	김우근
재 무	오동진	비 서	고할신

위의 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들이 후일 통군부 결성의 주요인물들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 이관린 여사는 호가 丈靑으로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 등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이관린에 관해서는 『쌍공 정이형 회고록』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그리고 민족출판사에서 간행된 『근대중국조선족녀걸』에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김승학의 『한국독립사』에는 1922년 12월 경 이관린이 양기탁을 인도하여 도만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1921년의 오기로 보인다(김필자, 『우강 양기탁의 민족운동』, 지구문화사, 1988. <연보> 참조).

36) 전덕명은 全德元의 從弟로 대한독립단에서 활동하다가 통의부를 거쳐 참의부 제2중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고마령 전투에서 순국하였다. (『개인 약력』<필사본>)

에 이르렀다.

대한통군부는 당시 남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가장 체계를 갖추고 있던 서로군정서(한족회)와 대한독립단·광한단 등의 대표들이 1922년 봄³⁷⁾ 환인현에서 이른바 ‘남만통일회’로 모여 성립되었다.³⁸⁾ 이 회의에서 각 단체는 각자의 조직을 해체하고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통군부의 직제를 보면 군사단체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교민의 자치행정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⁹⁾ 또한 통군부의 간부들의 면모를 보면 대개 대한독립단과 서로군정서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⁰⁾

이러한 대한통군부의 결성이 명실상부한 대통합이 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922년 6월 3일 중앙직원회의에서는 “통군부를 대개방하고 다른 기관으로 더불어 무조건으로 통일하되 일체 公決에 복종하자.”고 결의하고 아직 통일의 태도를 취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연통제측, 군정서측, 기타 단체에 위원을 파견하여 가입을 교섭하기도 하였다.⁴¹⁾

통군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大韓統義府’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1922년 8월 23일 이른바 8단 9회의 대표⁴²⁾ 71명이 환인현 마권자에 모여 “남만한족통일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한통의부 명칭 등 6개항을 결의하고, 8월 30일 남만한족통일회 회장 김승만의 명의로 발표하였다.

첫째, 각 단체 각 기관의 명의(평북연통제를 제외)를 취소하고 구역·인물·재정 등 일체의 제도, 인선 및 제반 처리사항을 무조건 公決 복종할 것을 서명 날인하고 서약한다.

둘째, 남만한족통일기관명을 대한통의부라 한다.

셋째, 군대 명칭은 의용군이라 한다.

넷째, 제도는 총장제로 한다.

37) 대한통군부의 조직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박결순, 「대한통의부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4), 224-225쪽 참조)

38) 《독립신문》 1922년 6월 24일자.

39) 이는 6월 20일 열린 제1회 총관회의에서 호적정리·교통원 문제·학교설립·실업장려·병력모집·재정통일 등 8개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

40) 총장 채상덕, 비서장 고할신, 민사부장 이웅해, 군사부장 이천민, 교육부장 김동삼, 실업부장 변창근, 사령관 김창환, 경무감 전덕원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26쪽.

41)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

42) 통의부 결성에 참여한 이른바 8단 9회의 대표들 17개 단체와 대표자를 모두 알 수는 없다. 알려진 8개 단체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서로군정서	백광운·김선풍 외 7명	대한독립단	이웅해·이영식 외 21명
관전동로한교민단	이형갑·이영해 외 3명	대한광복군영	변창근·이영신
대한정의군영	박정석	평북독판부	신언갑·김연준 외 9명
대한광복군총영	백남준·김창의 외 9명		

(《독립신문》 1922년 9월 30일자; 김정주, 『조선통치사료』(7), 1922년 조; 국사편찬위원회, 「남만한족통일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4), 761-763쪽; 윤병석, 『독립군사』, 232쪽. 주 31을 참조.)

다섯째, 헌장 9장 63조를 의결한다.

여섯째, 각 부서의 직원을 선거한다.

통의부는 통군부와 같이 군사 활동과 교민의 자치행정을 아우른 조직이며 총장 아래에 민사·교섭·군사·재무·학무·법무·학무·교통·실업 등의 9개 부서를 두고 있어 군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⁴³⁾ 이와 같은 통의부의 결성은 기존의 남만주 독립운동단체 통합과 같이 연합적 성격이 강하다.⁴⁴⁾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것이 후일 통의부가 의군부나 참의부로 분리되어 나가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4. 육군주만참의부와 백광운의 무장투쟁

1) 참의부의 결성

통의부는 3·1운동 이후 남만주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단이 가장 폭넓게 통합을 이룩해 성립시킨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연합체적 성격이 강한 관계로 성립 초기부터 구성원 각자의 이념과 노선 차이를 보여 왔다. 특히 주요 간부들 사이에 복벽과 공화라는 이념 갈등과 군권(軍權)의 장악을 둘러싼 인선과 조직상의 이견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과 불화의 중심은 복벽과 공화라는 이념을 대표하는 전덕원과 양기탁 이었다. 전덕원은 의병대장 유인석의 문인으로 일찍이 국내의 관서지방에서 의병을 모아 활동하였으며, 국권피탈 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단 재무부장으로 활약하는 등 남만지역 의병계 독립군을 주도하며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다. 반면 양기탁은 국내에서 《대한매일신보》 주필 등 애국계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1921년 말 만주로 망명한 후에는 남만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운동을 주도하면서 교민사회를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 두 사람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방략이나 이념상 차이가 있었으니 전덕원은 절대 복벽주의를 추구하는 인물이고 양기탁은 철저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의부 창립 초기 인선에서 전덕원 일파는 요직에서 배제되고 전덕원에게 할당된 직책도 허울뿐인 參謀部監이었

43) 윤병석, 『독립군사』, 233쪽.

44) 김병기, 「서간도광복군사령부의 성립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9),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1988, 172쪽.

다.⁴⁵⁾ 더욱이 8개부서의 부장 가운데는 나이 어린 오동진도 포함되어 있었음에 인선에 불만이 많았다. 자신은 재만 독립군 사회의 실력자로 자인하고 있었으나 원래 고집이 강하여 신진 청년들과 잘 융합되지 못하던 중 직위에 불만을 품고 취임치 않은 관계로 軍界의 부하들도 통의부에 가담하지 않은 채 관망상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갈등과 불만이 결국 무력 충돌을 가져오게 하였다.⁴⁶⁾ 1922년 10월 14일(음 8월 24일) 야간에 전덕원 계열의 유림계 독립단 군인 20여명이 관전현 이종성 집을 습격하였다. 이때 그곳에 유숙하던 김창의(통의부 선전국장)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 실내로 들어가 양기탁과 통의부 법무부장 현정경, 통의부 검무감 김관성, 통의부 교통국장 황동호, 통의부 비서관 고할신 등 주요 간부를 포박하여 구타한 사건이 일어났다.⁴⁷⁾ 이를 이른바 ‘서간도 사변’이라고 한다. 사건이 발생 한 직후 당사자인 전덕원과 양기탁이 원만한 해결에 노력하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박은식·안창호·이동녕·원세훈 등 주요인사 40여 명이 회합을 갖고 조문단과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⁴⁸⁾

이 사건은 또한 통의부 상하부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도층인 상층부의 중앙조직은 공화 계열이 주도하고, 직접 무력을 행사하며 군사동원의 자율권도 행사하는 의용군 중대장급 지휘관들은 북벽적 성향을 가지거나 중도파를 표방하는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것이 그것이다.⁴⁹⁾ 쌍방간의 합의나 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통의부내 북벽 계열과 공화 계열 사이에 대립은 악화되어 결국 그 해 12월 하순에는 쌍방간에 교전까지 일어났다. 더욱이 이듬해 1월에는 紅廟子 방면에서 동족상잔의 대규모 유혈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덕원을 비롯한 북벽파 계열의 인사들인 채상덕·김평식·오석영·박대호 등은 1923년 2월 환인현 대항구에서 통의부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이 ‘義軍府’를 설립하였다.⁵⁰⁾

45) 정이형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전덕원이 ‘통의부에서 맡은 직책이 부장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檢務局長이라는 部보다 조금 차등인 자리가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쌍공 정이형 회고록』, 국가보훈처, 1996, 70쪽.) 그러나 정이형은 1922년 11월 처음 만주로 건너갔음으로 이른바 ‘서간도사변’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당시 통의부 공화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전덕원 反動事件’으로 이해되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으로 한때 통의부의 각 부장들이 일괄로 사표를 내었다고 하여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쌍공 정이형 회고록』, 62쪽.)

46)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신설되는 통의부가 국체는 ‘民國’으로, 정권은 신진인물에게로 쏠리게 되자 북벽계 인사들 간에 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을 알고 차라리 신진의 인물들을 제거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던 듯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독립신문》1922년 11월 8일자)

47) 김병기, 『참의부연구』, 31쪽.

48) 《독립신문》 1922년 11월 8일자. ‘서간도 사변’의 내막은 《독립신문》11월 18일자의 「충고남만동지서」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49)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3, 55쪽.

5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5), 435쪽.

그러나 의군부의 설립시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다. 『기려수필』 ‘전덕원’ 조에는 1922년 1월 조직된 것으로 나와 있으며, 《독립신문》1923년 6월 13일자에는 1922년 10월 이후 쌍방의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편 《독립신문》1922년 12월 13일 자에 의하면 전덕원계인 제1중대장 차日楚가 중대를 대표하여 양기탁 등 9인에 대한 ‘범죄사실 심판요구 28개항’을 총장대리 채상덕에게 제출한 바가 있으며, 또한 통의부 헌장과 사판장정을 위배하고 군법국장·검무국장이라는 새로운 官名을 만들었다는 기록 등이 나타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의군

통의부가 의군부와 서로 반목하여 분립될 때 의용군 5개 중대와 유격대·독립소대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兩府는 교민 호수의 쟁탈과 관할지역의 중복으로 경쟁 관계가 되면서 다시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입하여 활동을 마치고 귀환 중이던 의군부 유격대장 이경일 부대가 통의부의 부대에게 습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유격대장 이경일은 국내 진공 작전을 마치고 20여 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본영으로 돌아가다가 관전현 泡水河邊 등에서 통의부의 김석하 부대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이경일·장집중·박초식·김상수 등 의군부 대원들은 곳곳에 잠복해 있던 통의부 부대원에게 살상당하고 결국 모금한 군자금과 무기가 모두 탈취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⁵¹⁾ 이후 통의부 제5중대장 김명봉과 부대장 조태빈도 통의부를 불신임한다는 혐의로 피살되고 그 중대 무기도 압수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⁵²⁾ 이와 반대로 의군부에서도 통의부 부대의 무기를 강탈하고 군인을 구타하는 등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⁵³⁾

통의부의 이러한 분열사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립적 태도를 지켜오던 통의부 의용군 제 1·2·3·5 중대는 유격대·독립소대와 더불어 각 중대장을 중심으로 사태의 해결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6월부터 이들은 집단적으로 통의부와와의 관계를 끊고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23년 8월 통의부 의용군 제 1·2·3·5 중대가 채찬·조능도·박응백·김원상·조태빈 등 5명의 통의부 의용대 각 중대 대표를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 그간의 전말을 보고하고,⁵⁴⁾ 전 광복군사령부의 계통을 이어 임시정부 군무부 직할의 남만군단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⁵⁾ 임시정부의 입장에서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문제 등으로 활동이 극도로 쇠잔해 있었던 형편이었으니 크게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⁵⁶⁾ 임시정부는 전 광복군사령부 설립에 관여했던 독립신문사 사장 김승학과 이유필을 파견하여 군정부 조직에 적극 협조하게 하였

부의 설립은 보다 더 앞당겨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1) 김승학, 『한국독립사』, 349쪽.
- 52) 김명봉과 조태빈은 일찍이 황해도 의병장 조맹선과 이진룡을 따라 남만주에 건너왔던 인물이다. 그들은 대한독립단의 청년들을 모아 부대를 편성하고 군영을 흥경현 왕청문 이도구에 두고 국내외에서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들이 피살된 후에는 김지풍과 박대호 등이 계승하였다가 후일 참의부로 편입되었다. (김승학, 『한국독립사』(1983년 개정판), 397쪽, 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114쪽, 김병기, 『참의부연구』, 73쪽 참조)
- 53) 《독립신문》 1923년 6월 30일자.
- 54) 이들 5명의 통의부 의용대 대표는 각 중대를 대표하여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김원상의 경우는 4중대 출신인지 확실치 않으나 통의부 결성시에는 교섭부원으로 나타나 있다. 나머지 4명은 순서대로 각 중대 출신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4), 762쪽, 참조.)
- 55) 5명의 대표들이 함께 행동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 가운데 채찬과 김원상은 1923년 12월 2일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1923년 12월 5일자 참조.) 또한 독립신문에서 채찬과 김원상을 인터뷰한 기사가 12월 26일자에 실려 있다. (《독립신문》 1923년 12월 26일자 참조.)
- 5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459쪽.

다.⁵⁷⁾ 그 결과 1924년 6월 2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가 결성되었다.⁵⁸⁾ 결국 통의부의 1차 분열로 의군부가 설립되었다면, 2차 분열로 참의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의용군 제1·2·3·5 중대가 대거 이탈한 후에 통의부는 곤경에 처했다. 그러나 곧 재정비에 착수하여 이탈에 응하지 않았던 제4중대를 중심으로 제5·6·7·8중대를 새로 편성하여 이전과 같은 5개의 중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참의부와는 알력과 대립은 그치지 않았다. 즉 1925년 6월 참의부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반목과 질시가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 그리하여 동 참의부는 설립 이래로 실천운동에 다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압록강 상류에서 齋藤 총독을 저격하고 밀정 崔晶玉을 토벌하는 등의 사적을 남겼다. 그런데 통의부의 간부들은 참의부를 질시하여 남만 군단이 임시정부에 종속한 것을 치욕으로 여겨 성토문을 발표하고, 음력 7월 2일 밤 참의부 제5 김명봉 隊를 습격하여 간부 김명옥 이하 2인을 암살하고 무기를 강탈하여 암살단을 사방에 亂派하며, 중앙에 내습하여 참모장 채찬(백광운)을 참살하고, 조선내에 들어가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만주로 돌아오는 중인 김정옥 외 4인을 압록강 기슭에서 사살하여 무기 및 군자금 3만여 원을 탈거하는 등의 불상사가 다대하였으나 ...”⁵⁹⁾

결국 위의 성명서에 기록된 대로 1924년 10월 18일(음 9월 13일) 통의부 제6중대장 문학빈 부하인 변만리에 의해 참의부 참의장(제1중대장 겸임) 백광운이 피살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통의부 의용군 5개 중대는 이후 동요와 이탈을 겪으면서 대부분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육군주만참의부에 참여하게 된다. 제4중대를 포함한 일부 군인들은 통의부 의용군을 다시 재정비하여 정의부가 성립될 때는 5개 중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부 부대는 이후 참의부 세력, 신민부 세력과 연합하여 3부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0년대 초 한국독립군·조선혁명군을 결성하고 만주 지역에서 중국 구국군과 합작하여 대일항쟁을 벌이게 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으로, 일부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 한국광복군의 원류가 되었다.

2) 참의부와 백광운의 무장투쟁

참의부는 1920년대 중후반 압록강 대안의 남만주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한 임시정부 산하의 무

57)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131쪽.

58) 윤대원, 「참의부의 '법명'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4집, 2013, 125~126쪽.

59) 「조선민족운동연감」, 『독립운동사자료집』(7), 1376~1377쪽.

장독립운동 단체이다. 참의부는 처음부터 군사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선임 중대장이 참의장을 겸임하고 5개 중대는 각 중대장이 중심이 되어 편제되었다. 참의부는 대일 무장투쟁을 위해 조직되었으므로 군사조직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것이다.⁶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국내 진공투쟁을 벌여 이시기 압록강·두만강의 국경지대에서 발발한 대일 전투의 3분의 2가 참의부에서 수행한 것이었다.

참의부가 벌인 대일항쟁은 유격전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타국의 땅에서, 또한 강대한 일본의 정규군과 정면대결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취해진 전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격전을 통해 참의부 독립군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교란하고 민중의 항일의식을 고무하여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참의부의 초기 핵심세력은 백광운(채찬)이 지휘하는 제1중대라 할 수 있다. 참의부 제1중대는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설립되었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일찍부터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백두산 산록에 백서농장이라는 군영을 설치하여 둔전과 훈련을 병행하였다. 이들 가운데 중요 임원이었던 신광재와 백광운 등이 서로군정서 의용대로 활동하다가 경신참변 이후 만주에 남아 '의용군 1중대'라 칭하고 일제의 밀정 숙청과 적 기관 파괴에 힘썼던 것이다. 불행히 신광재가 병사하자 백광운은 장기초(김소하) 등과 함께 군세를 확장하고 집안 현과 통화현 등지에서 활약하게 된다.

백광운의 본명은 채찬(蔡燦)이다. 그는 충북 충주군 덕산면 성내동 출신으로 일찍이 의병대장 이강년의 휘하에서 의병에 투신하고 왜적에 항거하여 수년간 교전에 참가하였다.⁶¹⁾ 그러나 의병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기에 이르자 망국의 통한을 품고 고향에 있는 노모와 형님에게 장차 망명의 뜻을 전하고 보부상으로 가장, 사방으로 동지를 규합하다가 경술국치 후 남만주로 망명하였다.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동창생인 경남 양산 사람 신광재와 의기투합하여 백서농장 결성에 참가하였다.

서로군정서가 창설되자 이들은 서로군정서 대원이 되어 함께 압록강 연변에 주둔하며 국내와 연락하고 국내 진공대를 조직하여 적의 행정기관 파괴 공작에 종사하였다. 1920년 남북만주 일대가 일본군의 침략으로 참혹한 변을 당할 때 교성대는 안도지역으로, 서로군정서 본부는 액목현으로 흩어질 때 백광운은 동창생이었던 신광재·김소하와 함께 오히려 흩어진 독립군을 모집하여 의용대를 재조직하고 국내외에서 친일 밀정들을 처단하고 적 기관을 파괴하였다. 이들의 무장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0) 처음 군사조직으로 출발한 참의부는 재만 교포사회의 형편에 따라 점차 교민들의 자치 행정에 치중하여 행정·사법·입법 등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춘 준정부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61)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자공훈록』제4권, 1987, 928쪽.

- 1920년 5월 20일에 동지 이창덕 외 4인으로 강계군 문옥면 적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 같은 해 7월 16일에는 이창덕으로 하여금 적 앞잡이로 유명한 후창군수 계응규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 1921년 1월 25일 적 경찰 70여 명이 관전현으로 침입할 때 독립군 10여 명으로 맹공격 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또한 관전현 태평면에 소재한 일제의 민단을 토멸하였다.
- 같은 해 가을부터 관전현, 집안현, 통화현, 임강현, 유하현 등 각 현에 소재한 일제의 민단, 보민단, 강립회 등 수십 개소를 격멸 숙청하였다.
- 이후 강계군 어뢰면 적 주재소 습격, 문옥면 적 주재소 습격을 통해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 밀정 제거에 전념하였다.⁶²⁾

백광운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제1중대,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을 거쳐 참의부 참의장과 제1중대장을 겸임하면서 꾸준하게 대일항쟁을 전개하였다. 참의부는 정의부나 신민부에 비해 한중국경과 가까이 위치한 관계로 국내 진공작전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을 실행한 반면, 일본군의 공격도 다른 독립군 부대에 비해 더 심하게 받아 수많은 인명과 물자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였다.

참의부의 무장투쟁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저격'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총독을 죽이지는 못하였고 작전의 규모도 크지는 않았으나 우리 민족과 독립운동계에 적지 않은 용기를 불러 일으켰고, 반대로 일본측에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 것이다.⁶³⁾

1919년 3.1운동 직후 부임한 이래 소위 '문화정책'을 실시하여 우리 민족을 회유하려던 사이토 총독은 수년간에 걸친 자신의 치적을 살피고 또한 국경지방의 치안과 경비상태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1924년 5월 서북지방으로 왔다. 총독 일행은 5월 19일 지방 유지를 비롯하여 신문기자, 다수의 경찰관을 이끌고 두 척의 경찰 순시선에 나누어 타고 압록강 상류에서 신의주를 향하여 국경을 시찰하는 중이었다.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탐지한 참의부 제1중대장 백광운은 소대장 장창헌에게 총독을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장창헌은 부하 전창식·김창균·현성묵 등 13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평안북도 강계군 고산면 남산동 마시탄의 대안(對岸)에 매복하였다가 사이토 총독 일행이 승선한 雄飛丸과 飛鳥丸에 사격을 개시했다. 기습을 당한 일제 경찰은 겁에 질려 제대로 응전조차 못하고 사격권 내를 벗어나기 위해 전속력을 달아났다. 총독은 비록 생명은 겨우 보전하였으나, 그 해 6월에 열리는 일본 국

62) 이후 통의부에서의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 440~443쪽 참조.

63) 사이토 총독 저격 사건에 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의용군의 재등총독일행 총격』, 『한국독립운동사자료편』(3), 785~801쪽 참조.

회에서 자신의 조선통치 업적을 보고하는 대신 돌발 상황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저격 사건은 신문들과 상해의 《독립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민중의 반일정서를 크게 고무시켰다.⁶⁴⁾

참의부 성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초대 참의장과 제1중대장을 겸임하였던 백광운은 결국 통의부의 반대파의 질시를 받아 통의부 유격대장 문학빈의 부하 백병준·백세우(변만리)에 의해 1924년 10월 18일 피살되었다.⁶⁵⁾

이와 같이 참의부는 1923년 8월경 통의부에서 분립하면서부터 1929년 해체될 때까지 7년여 동안 만주와 국내에서 일제의 관공서를 파괴하고 일제 군경 및 밀정과 친일파를 숙청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재만 한인들과 내국인들에게 항일사상을 선전하고 그들의 항일투쟁을 고무시켰다. 참의부 독립군의 대일 무장 항쟁은 한민족 독립투쟁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⁶⁶⁾

5. 맺음말

무장투쟁은 대일항쟁기 일제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전략의 하나였다.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군 간부의 양성이 필요했다. 1911년 서간도 유하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설립된 서간도지역 최초의 무관학교라 할 수 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무장투쟁은 물론 의열투쟁, 군자금 모집, 교육사업 등에 헌신하면서 남북 만주를 비롯하여 중국 관내, 러시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여 혁명이념의 선전과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 여기에서 발행된 《신흥학우보》는 국내와 해외 곳곳에 배포되어 남만주 독립운동계의 대변지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통화현 쏘배차 심산유곡에 독립군 군영인 '백서농장'이 설립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對日戰爭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독립을 향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던 신흥학교 졸업생들은 군영을 설치하여 장차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곳에 모인 정예군

64) 《독립신문》 1924년 5월 31일자. 반면 1925년 3월 16일 집안현 고마령에서 국내진입을 위한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일제 경찰의 기습으로 혈전 끝에 참의장 최석순 이하 29명이 전사하는 이른바 '고마령 참변'은 독립군 전투사의 불행이었다.

65) 백광운이 피살된 시기는 1924년 10월 18일(음력 9월 13일)로 자료에 보인다. (신민부 鄭潤, 「백광운 공을 꺾함」, 『한국독립운동현사자료초안』 <초고본>) 한편 백광운의 서거를 알리는 「부고」라는 필사본 문건에는 백광운이 1924년 9월 14일 상오 8시 집안현 본부 소재지에서 순국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 부고에는 9월 18일자로 '참의장 대리 沈龍俊과 참의부원 일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독립운동현사자료초안』 <초고본>에는 백광운의 순국에 대해 신흥강습소 시절부터 그를 지도했던 임시정부 이시영, 신민부 정운, 동창생이었던 장기초(김소하)의 추도사가 실려 있다.

66) 참의부 무장투쟁 상황은 김병기, 「참의부연구」, 94~110쪽 참조.

인 385명은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한편 둔전을 경영하며 식량을 자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심산유곡 오지에서의 軍營 운영은 그리 녹록치가 않았다.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질병이 속출하면서 훈련과 농사도 더 이상 해나가기 어려웠다. 극한상황에까지 몰리면서도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만 4년 만에 한족회의 결정으로 농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3.1운동 후 군정부인 서로군정서가 설립되면서 졸업생들은 의용대에 참가하여 만주와 국내 각지에서 군자금 모집하고, 압록강 대안의 일제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무장투쟁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0년 10월 일본군의 간도침입으로 촉발된 ‘간도침변’으로 서로군정서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청천이 이끄는 교성대는 안도현을 거쳐 러시아 이만으로, 본부는 액목현으로 각각 避戰策을 택하여 분산된 것이다. 다만 백광운·신광재·김소하 등이 지휘하는 잔여 병력은 남만주에 그대로 머물면서 일본군의 대부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1921년 초부터 친일세력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남만주일대에서 보민회·조선인민회 등 친일단체들을 몰아내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일제의 자료에 따르면 신광재의 신출귀몰한 무장활동은 친일파와 일제 관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고 전한다. 백광운 등이 ‘의용대 1중대’를 표방하며 맹렬하게 활동하던 중 1921년 8월 열혈 동지였던 신광재가 병으로 죽자 백광운이 뒤를 이어 의용대를 이끌었다.

1921년 말부터 남만주 독립군의 재편이 일어나면서 통군부-통의부가 결성되고 백광운은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이 되어 무장투쟁에 앞장섰다. 그러나 통의부 내부에서 ‘복벽’과 ‘공화’라는 내부의 갈등으로 의군부가 분립되어 나갔으나 이들 사이의 반목과 충돌은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백광운을 비롯한 통의부 의용군 제1, 제2, 제3, 제5중대와 유격대·독립소대의 군인들은 집단적으로 통의부와와의 관계를 끊고 항일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수해하기 위해 성립된 단체가 참의부이다. 통의부의 1차 분열로 의군부가 설립되었다면, 2차 분열로 참의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 참의부의 조직은 무장투쟁을 위주로 편성되었다. 선임 중대장이 참의장을 겸임하고 5개 중대를 중심으로 독립소대와 훈련대를 편성하였다. 행정조직은 최소화하여 군자금 징수를 위해 민사부를 설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통의부와 참의부의 알력과 대립은 그치지 않아 결국 1924년 10월 18일 참의부 참의장 백광운은 통의부 군인들에게 피살되기에 이른다.

본명이 채찬인 백광운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오직 무장투쟁에 진력해온 뛰어난 지휘관이었다. 백서농장의 농감으로, 서로군정서의 의용대장으로, 통의부 의용군 제1중대장으로, 그리고 참의부 참의장 겸 제1중대장으로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그는 무장투쟁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그래서 남만주 무장투쟁사에서 백광운의 무장투쟁은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백광운의 백서농장 경영과 재만무장투쟁 토론문

채영국(인천개항장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병기선생님은 발표주제인 백광운을 중심으로 일제하 우리 민족운동가들의 서간도 독립군기지 개척부터 시작해 참의부의 성립 및 활동까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부분적인 부분 몇 가지 토론을 겸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은 백서농장이 1914년 설립돼 1919년 3·1운동 시기까지 약 4년 넘게 존속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신흥무관학교도 함께 서간도 지역 독립군양성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거의 같은 영역에 역사적으로 크게 의미있는 두 독립군양성기관이 존립한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은 교육과정이나 목표가 똑 같았을 것 같지 않고 교육수준의 차이라거나 졸업 후 졸업생들의 역할이 틀릴 수 있도록 교육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광운이 초대 참의장이 된 참의부의 성립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김선생님은 윤대원이 『한국독립운동사연구』44집에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 참의부 결성시기를 1924년 6월 26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학위논문에서는 1923년 8월, 1924년 5월경 등 여러 설을 제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6일 이전에도 참의부 소속 유격대의 이름으로 일제와 항전을 벌인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24년 5월 29일 후창군 우항령에서 일경찰대와 유격전을 벌인 김창화부대, 24년 6월 24일에는 자성군에서 일경찰대와 일전을 벌인 참의부결사대의 활약이 있었고, 특히 24년 5월 19일에는 동아일보와 독립신문에 보도까지 난 위원군 마시탄에서 조선총독 사이트 마고토를 공격한

장창헌 부대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6월 26일이 성립일이라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의부 지휘부, 즉 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의부의 최고 지휘관인 백광운이 통의부 대원들의 공격을 받아 피살될 정도였으니, 통의부와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였을 것이고, 그 시기 통의부는 독립군기지 초기부터 우리 민족운동자들이 확보했던 유하·통화·환인현 등 서간도 대부분의 지역을 관할했는데, 그렇다면 통의부에서 떨어져 나가 같은 서간도지역에서 이주한인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한 참의부 사령부의 근거지는 어디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같은 시기 활동했던 정의부나 신민부보다 유독 국내진입 유격전을 활발히 펼친 참의부였기에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황민호(숭실대 사학과)

1. 머리말

백산 지청천은 1888년 1월 25일 서울에서 아버지 池在善과 어머니 경주이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貫鄉은 충주,冠名은 錫奎였고 아명은 壽鳳이었다. 그는 어려서 書堂 교육을 받았으며, 1897년 교동소 학교에 편입하였고 1904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1907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교가 폐교되자 국비생으로 일본에 유학하였고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1914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26기로 졸업하였다. 이후 1915년 靑島戰役에 참전하여 실전경험을 익혔으며, 1919년 4월(음) 일본군 현역장교의 신분으로 서간도의 신흥학교를 찾아가 본격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서간도지역으로의 망명 당시 지청천은 일본 육사 23기인 김경천과 함께 최신병서와 군용지도를 갖고 갔다고 하며, 1919년 5월(음)에는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그는 서로군정서와 정의부의용대의 사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만주사변 이후에는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¹⁾

지금까지 지청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²⁾ 광복군총사령으로서의 이청천의 활동과 대동청년단 등 행방 이후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 성과도 다수가 있다.³⁾ 이밖에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정의부에서의 활동과 민족유일당운동 및 혁신의회와 한국독립군의 활

1) 지복영,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며-항일무장 독립운동과 백산 지청천장군』, 449-452쪽, 문학과지성사, 1995.

2) 池憲模, 『靑天將軍의 革命鬪爭史』, 삼성출판사, 1949. 박영석, 「白山 李靑天將軍」, 『在滿韓人獨立運動史研究』, 일조각, 1988. 이현주, 『한국광복군총사령 지청천』, 역사공간, 2010.

3) 한시준, 「이청천과 한국광복군」, 『한국근현대사연구』56, 2011. 노경채, 「일본 육사 출신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내일을 여는 역사』1, 2000. 김수자,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 『역사와 현실』31, 1999.

동 및 한국독립군의 중국관내로의 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⁴⁾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는 김경천의 『擎天兒錄』과 지청천이 남긴 『자유일기』와 한국독립당에 참여했던 李圭彩의 신문조서를 분석하여 이청천의 활동을 조명한 연구가 있으며,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⁵⁾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자료를 중심으로 지청천의 활동을 정리해 보는 한편, 이규채의 재판기록 등을 통해 나타나는 지청천과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일정하게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II. 만주로의 탈출과 신흥무관학교

지청천의 유년 시절의 교육과정과 만주로의 탈출과 관련된 내용은 『신한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간 긴 내용이지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청천은 경성사람이오 호는 백산이다. 품성은 영명○○하고 신체가 건장하고 위엄이 당당하여 ○○군관자격을 갖추어 가졌더라 그의 소년시대는 한국 ○○초에 있었음으로 그때 신문화의 최고학부인 배재학당에서 수업하여 보통과를 졸업하니 묘령이 17이요 때는 광무 9년이라 노백린 이갑 등이 주관하는 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학을 배우더니 을사조약 늑체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아울러 무관학교와 및 무관유년학교까지 폐지함에 이로 인하여 이청천이 학업을 중지하였고 그후 전임 무관학교 교장인 노백린이 다시 무관유년학교를 설립하고 50명생도를 뽑아 가르칠 때에 이청천이 그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더니 1년을 지나 또 일본의 간섭을 받아 이 학교까지 폐지됨에 이청천이 다시 그 학업을 중지하게 되었나니 이청천이 소년시대에 군사학을 배우는 길이 이만치 간난하였고 그는 이때로부터 국가의 주권 상실을 분기하여 맹세코 군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하더라

4) 황민호, 「만주지역 민족유일당운동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5, 송실사학회, 1988. 박환, 「在滿韓國獨立黨研究」 『在滿韓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91; 추현수,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신재홍, 「한중연합군의 항일전과 독립군의 수난」 『한민족독립운동사』 4, 1988. 張世胤, 「韓國獨立軍의 抗日武裝鬪爭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한상도, 「在滿韓國獨立黨과 韓國獨立軍의 中國關內地域 移動」, 『사학연구』55·56, 한국사학회, 1998.

5)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青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황민호, 「한국독립군의 성립과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이준식, 「항일운동사에서 대전자령전투의 위상과 의의」,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그후 한국정부의 파견을 받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육군중앙유년학교에 입학하여 6년을 전공하여 육군사관과를 졸업하였더라 이청천은 본래 기품과 ○락이 특출함으로서 일본군대에서 상위가 되었고 청도 덕일전쟁에 중대장으로 출전하였더라

광복 대계의 큰 뜻을 품은 이청천이 부득이 일시 적군중에 근무한 것은 다만 군사학을 배우기 위함이고 또 적정을 유의하여 다른 날 전쟁에 참고를 삼기 위함이더니 1919년 3.1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5월에 드디어 군관을 버리고 틈을 타 만주 서간도로 가서 신흥학교의 군사교관이 되니 이것이 이청천의 본 뜻이오 그의 귀난 용이 못속에서 일어난 듯, 범이 함정을 벗어난 듯 대비락을 꺾하더라.⁶⁾

위의 내용에서 보면 지청천의 품성이 영명하고 신체가 건장하며, 위엄이 당당하여 군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배재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무 9년(1905) 노백린과 이갑이 주도하는 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학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주권 상실에 분기하여 맹세코 군사학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하여 그가 군사학을 배우기 시작한 동기부터가 애국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청천은 일본 동경에서 육군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일본육사를 졸업하였으며, 청도전쟁에 출전했다가 3·1운동 이후 서간도의 신흥학교에 가서 군사교관이 되니 용이 못속에서 일어난 듯하며, 범이 함정에서 벗어난 듯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한민보』의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당시 미주 동포사회가 광복군 총사령 지청천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청천의 만주로의 탈출은 일본육사 23기생인 김경천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김경천은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는 바와 같이 1919년에 전무후무한 세계적 회의가 열리고 각 약소민족에게도 권리를 준다함에 우리 동경유학생이 독립운동의 첫소리를 발하였소 이때 나는 동경에서 사관학교를 마치고 일본 육군 기병대 1연대 사관으로 있은 때이라 꿈속같이 기쁜 중에도 ○일듯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소. 그리고 병으로 수유를 얻어가지고 2월 20일에 경성에 도착하니 도처에 공기가 이상스러웠소 그러더니 3월 1일에 독립선언이 터지니 이때 우리 군인 몇 사람은 장래 조선민족이 독립운동을 하자면 아령과 남북 만주를 중심삼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 하고 동지 이청천과 함께 밀의하고 국경을 넘으려는데 당시는 경계가 심한 때이라 잘못하다가는 잡힐 염려

6) 홍연찬, 「한국독립광복군 총사령-이청천사략」, 『신한민보』 1940년 10월 24일.

가 있음으로 6월 6일에 우리 두사람은 군복을 벗고 보통 양복을 갈아 입은 후 자동차로 수원으로 갔었소 그리하여 수원에서 차를 타고 그대로 남대문으로 오니 해가지고 어둡게 되다. 그대로 신의주까지 와서 자는데 밤중에 경찰의 조사가 있음으로 그밤을 자지 못하고 처음에는 일인이라 대답하고 정거장에 가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간도 무관학교에 가서 군사를 가르면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⁷⁾

위의 내용에서 보면 일본 육군 기병대 1년대 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경천은 민족자결주의의 영향 하에 동경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이 결행되자 병을 핑계로 2월 20일 경성에 도착했으며, 서울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나자 지청천과 국경을 넘어 국외로 탈출할 것을 밀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지청천과 김경천은 자동차로 수원에서 남대문과 신의주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서간도의 한족회에 도착했으며,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간도로 탈출한 지청천과 김경천은 한족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우리의 고난이 끝이 있어 약 보름만에 봉천성 유하현 孤山子 大 子에 있는 서간도 무관학교에 도착하여 南一湖군의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본 무관학교는 올해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가 독립선언을 이후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군사학을 시작한 것이니 범사에 매우 유약하다. 만주인의 건물을 임차하고 새로운 건축도 하는 중이다.⁸⁾

2) 3·1운동 발발 후, 한족회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도 집행해야 했다. 그리하여 한족회는 혁명운동의 요구로 군사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를 大韓西路軍政署라 명명하였다. 산하에 2개의 좌우익(聯隊)을 설치하고 좌우익 아래 또 6개 큰 부대(大部隊)를 설치하였다. 군정서의 간부는 모두 구 한 국정부군대의 고급군관 및 외국군관학교 출신이었으며 초급 간부는 新興學友團 단원 혹은 기타 군사학교 출신이었다. 그리고 군정서의 병사들은 전부 18~40세의 한국교민으로서 3개월 이상 실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新興學校, 본교와 분교의 2000여명 학생은 군정서의 간부후보였다. 한국교민(韓僑)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밤낮 없이 군사 교육이 실시되어서 마치 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와 긴장이 감돌았다.⁹⁾

7) 「米雪싸힌 西伯利亞에서 紅白戰爭한 實地經驗談(俄領朝鮮人 金擎天)」, 『동아일보』, 1923년 7월 9일.

8) 김경천, 김병학 정리, 『擎天兒日錄』, 학고방, 2012, 76쪽.

9) 김학규, 「30년이래 중국 동북에서의 한국 혁명운동(후속)」, 『광복』 제1권, 제2기, 광복군총사령부정훈처, 1941.

우선 1)의 내용에서 보면 국내를 탈출한 지청천과 김경천은 15일만에 유하현 고산자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 도착하였으며, 신흥무관학교는 3·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3·1운동 이후 보통교육 전부를 폐지하고 군사학에 집중하는 무관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에서는 3·1운동 발발 이후 한족회가 대한서로군정서라는 군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본교 분교의 2,000명의 학생들은 모도 간부 후보였으며, 밤낮없이 군사교육이 실시되어 마치 전쟁전야의 분위기와 같은 긴장감이 돌았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지청천과 김경천은 가을이 되기 전에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격하는 것을 꿈꾸며,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김경천은 신영군과 함께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로 떠났다고 한다.¹⁰⁾ 실제로 서로군정서에서는 독립군의 전력을 강화에 필요한 무기구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1920년 5월에는 金俊, 金鳳鶴 등 14명의 대원을 露領 秋風에 파견하여 무기를 구입 운반해 오도록 하기도 했다.¹¹⁾

이 같은 상황에서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군사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919년 11월에는 서로군정서사령관이 취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지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경신참변 이전까지 서로군정서 대원들이 전개했던 항일무장투쟁의 내용이다.

<표 1> 1920년 서로군정서의 군사활동¹²⁾

날짜	의용군 내역	군사 활동 내용	비고
1920. 6	의용군	국내 작전 전개, 평북 강계·자성·벽동·위원 등지에서 적 기관 습격, 밀정 처단	서로군정서 국내 작전 시작
1920. 6	1중대 1대	野猪溝에서 일제 경찰대·산림대와 교전	6명 전사
1920. 6	의용권 李東奎 등 1대	평북 사주 양산면 적 주재소 습격	許基浩 등 4명 전사, 천마산대와 합동으로 작전
1920. 6	중대 1대	집안현 磊四岔, 관전현 小荒溝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격퇴	
1920. 6	1중대 1대	집안현 祥和堡에서 적 경찰대 60명 격퇴	
1920. 8	李昌德·李宗植 1대	평북 후창군의 친일파 군수 등 총살	
1920. 8	金東淳·韓愚錫 등	서울에서 적 고관 처단, 군사령부 설치 계획	10명 체포로 실패

10) 앞의, 『擎天兒日錄』(1919년 6월 9일 이래) 9, 79쪽. '여름이 다가고 초가을이 올려고 한다. 여러 유자들은 낙엽이 떨어지면 군사행동이 불리하니 무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압록강을 한번 넘기가 소원이라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현재 형편으로는 압록강을 고사하고 개천도 못건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무기 문제가 생겨 혹은 무송현으로 가자하며, 혹은 러시아령으로 가자고 한다. 회의한 결과 러시아령 니콜리스크로 가기로 하였다. 위원을 정하니 나와 신영군 두 사람이다.'

11) 국사편찬위원회, 『間島不逞鮮人團狀況』, 『한국독립운동사』3, 645쪽.

1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군전투사일지』, 『서로군정서의 전투』, 『독립운동사』5, 지복영, 앞의 책, 72쪽 재인용.

1920. 7	의용군 문학빈·宋文平 등 1대	삭주·벽동 등지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하찬리·이구태 전사
1920. 8	의용군 문학빈·송문평 등 1대	평북 자성·대안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1920. 8	유격대	평북 강계 고산면에서 적 경찰대와 교전, 격퇴	
1920. 9	4중대 이병철 등 1대	평북 강계군 문옥면·삼강면에서 적 주재소, 면 사무소 습격, 무기노획, 적의 자금 압수	

III. 정의부에서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920년대 중반 이후 지청천은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정의부에서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 의용군 총사령관으로서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대한통의부를 탈퇴한 梁起鐸이 길림지역의 유력자인 李章寧과 朴觀海 등을 설득하여 찬성을 얻은 후 金滿統一會議籌備會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장녕을 준비회장으로 추대하여 1924년 7월 10일 길림에서 준비발기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회의가 지속되면서 12월 25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이 결의되었고 정의부가 건립되었다.¹³⁾

이후 정의부에서는 지방치안유지를 위해 무장대를 둘 것, 정의부 구역은 당분간 하얼빈, 額穆, 北間島의 선을 劃하고 그 이남의 만주 전부를 포용할 것, 유지비로서 매호에서 해마다 6원과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것 등을 결의하였으며, 憲章 및 宣言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행정위원으로 이탁·吳東振·玄正卿·金履大·尹德甫·金容大·李震山·金衡植 등을 선임하였는데 이 때 지청천도 선임되었다.¹⁴⁾

또한 정의부는 초기에는 본부를 유하현 삼원보에 두고 참의부의 세력권인 관전현, 집안현, 桓仁縣, 통화현 등 4개현의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 10개의 地方總管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후 정의부는 본부를 樺甸, 吉林의 新安屯, 盤石 등지로 옮겨가며 활동하였으며, 1926년 말 경에는 17개 지방총관소를 설치하였고 奉天省과 吉林省에 살고 있는 한인 1만 7천여 호, 8만 7천 명을 관할하는 만주지역 최대의 독립운동 기관이 되었다.¹⁵⁾

정의부는 산하에 군사부를 두고 사령관 아래 중대와 소대를 두는 군사조직을 갖추었는데 지청천은

13) 정원옥, 「재만정의부의 항일독립운동」, 『한국사연구』, 34, 1981, 120쪽.

14)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18쪽.

15) 변승웅, 「정의부」, 『한민족독립운동사』4, 243쪽.

대한제국 군대 출신의 金昌煥 및 吳東鎭 등과 함께 지도부를 형성하였으며, 양세봉·문학빈·정이형 등이 소대장과 중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¹⁶⁾ 또한 정의부는 부내의 모든 장정에 대하여 의무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상비군으로 8개 중대와 民警隊를 두었고 1927년에는 7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군인들은 대체로 모젤과 뿌로닝 권총 그리고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¹⁷⁾ 한편 농촌에는 군사보급회를 설립하여 모든 장정과 재향군인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¹⁸⁾

지청천은 정의부 결성 직후인 1925년 1월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그의 임기는 1926년 10월 오동진이 후임으로 정의부 사령관에 임명될 때까지 지속되었다.¹⁹⁾ 그리고 1927년 12월 오동진이 일경에 의해 체포되자²⁰⁾ 재차 정의부 군사위원장 겸 사령관으로 선임되었으며, 정의부 中央査判所長을 겸임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동아일보』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부 사령장관 吳東振이가 테포되어 신의주 검사국에서 취도를 밟는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正義府에서는 그 후임 사령관을 물색하던 중 근간에 와서 額穆縣 蚊河子에 거주하는 日本士官學校 출신으로 步兵中尉까지 다니던 李青天(四五)를 선발하여 오동진의 후임을 삼는 동시에 다시금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개시하리라더라.²¹⁾

위의 내용에서 보면 오동진이 체포되자 정의부에서는 그 후임으로 지청천이 선발되었으며, 향후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정의부 의용군이 상황을 수습하면 여러 방면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임을 추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청천은 정의부의 결성 초기부터 정의부 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²²⁾

16) 당시의 정황에 대해 김학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25년, 梁基鏞, 李燾 등은 統義府, 義成團, 匡正團 등 8개의 단체를 大韓正義府로 통합하자고 제의하였다. 大韓正義府 본부는 吉林의 樺甸에 두기로 했는데 이곳에 본부를 두면 거의 동북삼성의 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義務金 납부자는 10만戶에 달하고 正義府의 모든 제도는 마치 공식 정부와 같았다. 興京 旺淸門에 化興中學를 설립하고 柳河 三原浦에 東明學校를 설립하였다. 이 밖에 기타 학교들을 설립하고 교포 및 자손들의 교육하였다. 또한 樺甸城에 華成義塾을 설립하고 혁명 간부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켰다. 旺淸門에는 남만학원을 설립하고 혁명에 필요한 각종 학문을 연구하였고 무장한 부대는 계속하여 대한의용군으로 명명하였다. 대한의용군은 吳東振과 李青天 등 사령관의 지휘 하에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김학규, 『30년 이래 중국 동북에서의 한국 혁명운동(후속)』, 『광복』 제1권, 제2기, 광복군총사령부정훈처, 1941.

17) 박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青天』, 『만주지역 한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8)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137~138쪽.

19) 지복영, 앞의 책, 454쪽.

20) 국가보훈처,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제4권, 1987, 747~749쪽.

21) 『吳東振後任은 李青天으로 決定, 내부의 정돈을 마치고서 各方面에 活動開始』, 『동아일보』 1928년 2월 8일.

22) 지청천은 1928년 8월 제5회 정의부 중앙의회에 참가하여 유일당조직방안에 대한 견해차이로 김동삼 등과 함께 정의부와 관련한 직무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대체로 정의부 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활동을 관장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주, 앞의 책, 226쪽.

<표 2> 『동아일보』에 나타난 정의부 의용군의 중요 활동

날짜	기사제목
1925.6.14.	正義府白山義勇隊 咸北에 潛入說, 대장 車承九의 인솔로 이십명이 드러와 군자금모집중이라고
1925.11.18.	大韓獨立團 正義府員 出現, 권총가지고 강서에 나타나 현금강탈
1925.12.2	正義府義勇軍 무기 불온문서 휴대코 潛入說, 李春山인솔하에, 동시에 군자도 모집코저
1925.12.11	正義府義勇軍 別動隊員 潛入說, 정보가 던하는 그들의 목적은 정읍 보던교에서 돈 어들것과 白白敎의 八萬圓도
1926.2.18.	正義府員 入京? 동지를 구하려 세명이 입경 한편으로 군자금도 모집해
1926.4.21.	正義府員六名 長春에서 警官에게 被捉, 각처에서 군자금모집한 까닭
1926.4.24.	正義府先鋒 小隊長申容哲 조선침입중도에서 잡혀
1926.4.24.	正義府서 海陸竝進決死隊 組織코 함남 평안남북도로 파견(四月二日)
1926.6.4	正義府員 六名中 金忠錫 金利大 두명이 시내에 잠복하였다고, 機密係에 倒着한 情報
1926.6.29	軍資募集 檄文, 평북지방에 격문을 보냈다고, 正義府 義勇隊에서
1926.8.1	楚山警官을 襲擊射殺한 正統團員 鄭伊衡被捉, 적화선연을 주요한 목덕으로한 길림의 정통단 金尙源은 신의주에서 鄭伊衡은 길림에서 잡혀, 主要한 目的은 朝鮮의 赤化計劃
1926.11.7	騷然한 情報과 各地의 拳銃青年, 正義府拳銃隊 潛入說, 勞働者로 變裝한 崔聖八一隊
1926.11.14	勞働者로 變裝한 正義府員 軍資모집코자 入境, 地方行政委員長 崔聖八 部長外三名을 引率
1926.12.2	拳銃으로 軍資募集, 여러곳에서 금품을 모집, 新義州署에 被捉된 正義府員二名(新義州)
1926.12.31.	警官 六名을 殺害한 正義府軍曹 六名被捉, 초산과 창성등디에서 경관들을 죽여 전후다섯해 동안에 놀랄만치 활동해, 昌城淸山駐在所 襲擊事件, 前後五年間 十數回犯行
1827.2.5	正義府員入境, 경찰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정의부원이 또 드러왔다고, 義勇團과도 連絡活動, 正義府 秘密幹部會議
1927.3.27	正義府員潛入? 총독부 명령받고 경북경찰부대 正義府무력단원인 朴泰柱 체포코저 활동
1927.8.16	龍川郡? 天摩嶺? 今明間 衝突豫想 平북경찰부의 대대덕활동, 正義府員 四人隊消息, 侵入만을 防禦 경찰소극방책
1927.8.22	東出西沒의 拳銃隊와 戒嚴狀態의 國境: 正義府의 義勇隊一派 三十餘名의 國境潛入을 揚言 兩處에 突現 檄文을 撒布, 軍資를 募集, 義州隊와 同系の 定州隊詳報, 警部の 親子를 拳銃으로 脅迫
1927.8.28	正義府員 간대온대, 警察이 그 服色으로 徹夜, 차저다니는 정의부원은 간데온데 업고 그 복색차린 경관대의 활동만 더욱 엄중, 平北拳銃團의 其後消息
1927.10.8.	平原拳銃團은「大韓正義府員」李正岩과 金海岩으로 판명, 前後八處의 富豪襲擊
1927.11.5,	正義府員 大金을 領去, 네명이 나타나 대금을 받고 유유히 종적을 감추어 버려, 今般에는 北靑郡에
1927.12.9.	對岸을 筆頭로 南朝鮮에 潛入, 압록강결빙기를 리용해 正義府의 緊직한 計劃
1927.12.10.	軍資五千圓請求, 고발받고 경찰은 대활동, 正義府別動隊名義로

<표 2>에서 보면 당시 정의부의용군 국내로 진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거나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격문을 살포하였으며, 경찰 등 친일세력을 처단하는 등 일제의 국경치안은 교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1941년에 발행된 『광복』 제1권 1기에 수록된 ‘光復軍總司李青天將略歷’에서 보면 ‘繼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 軍事部長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鴨綠江沿岸各地’라

고 하여 지청천은 정의부중앙집행위원, 군사부장 겸 조선의용군 사령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 연안 각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휘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²³⁾

正統團 위원인 평북 용천군 양광면 정이형(三二) 경남 부산출생 金鍾範(三〇)의 한명은 赤化宣戰의 사명을 가지고 약 3개월 전부터 중국 길림 北極門부근에 근거를 두고 표면으로는 秋田洋行 支店을 경영하는 듯 보이고 교묘히 관헌의 경찰망을 피하여 오든 바 동 단원 金尙源이라는 사람이 지난달 7월 상순에 조선에 들어왔다가 신의주경찰서에 체포되었는데 평북 경찰부에서는 경찰관 2명을 길림에 파견해 그곳 영사관 경찰서와 협력하여 가지고 수색한 결과 전기 정이형은 마침내 체포되고 김종범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데 정은 부하 30여명을 거느리고 상당한 활동을 하던 사람으로 大正 11년에 평북 초산으로 부근에 들어와 파출소를 습격하고 高橋순사와 2 사람을 죽인 일까지 있다더라.²⁴⁾

또한 위의 보도기사에서 보면 지청천의 휘하에서 활동하던 정이형의 체포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정이형은 1926년을 전후하여 부하 30여명을 거느리고 상당한 활동을 하던 인물이며, 1922년에는 초산 부분의 파출소를 습격하여 일제 순사 高橋 및 친일파 2명을 처단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지청천은 그가 남긴 「자유일기」 1956년 12월 11일자에서 정이형의 죽음에 대해 가슴 깊이 애도하였다.²⁵⁾

한편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전민족유일당운동과 삼부통합운동이 활발해 지자 지청천도 이 운동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정의부에서는 대체로 민족유일당운동의 축성을 籌備하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3부통합운동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23) 「光復軍總司令李青天將略歷」, 『光復』 第1卷 第1期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 1941. 21-22쪽.

24) 「楚山警官을襲擊射殺한 正統團員 鄭伊衡被捉, 적화선단을 주요한 목적으로한 길림의 정통단 金尙源은 신의주에서 鄭伊衡은 길림에서 잡혀, 主要한 目的은 朝鮮의 赤化計劃」, 『동아일보』 1926년 8월 1일. 그런데 이 보도기사에서 정이형을 정통단원이라고 한 것이나 적화선단을 위해 활동했다고 보도한 것은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25)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青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195쪽 재인용. “쌍공 정이형 동지가 서서 하다. 정동지는 품가 정의부 조선혁명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문학빈과 같이 5개 중대장의 1인인 지계부하이다. 적에 피포된 이래 근 20년의 주, 평양, 서울 감옥으로 전전하다 미군에 의해 석방되어 출옥되었는데 금년에 60세 가까이 되었다.... 20년 영어생활을 한 진정한 애국자 독립군이다.... 민족의 영웅으로 천당에 가서 깊이 평안하고 영화롭게 축원하노라 만수를 다 잊고 고이 잠드소서”라고 하였다.”

26) 「中央會議에서 決議된 正義府의 新方針, 위원 오십여명과 각 대표 참석, 三府統一積極圖成」, 『동아일보』 1927년 11월 23일. ‘모처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만주를 중심무대로 하고 모처에서 조선○○운동을 맹렬히 하던 정의부에서는 지난 9월 경 모처에서 중앙의회를 열고 주민 자치와 ○○운동에 대한 신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바 참회의원은 중앙집행위원 김동삼 이하 9지방 7개구역 위원 등 합 50여명과 기타 ○○로 동당 만주청년총동맹 만주여자교육회 등 각 단체 대표 10여명이 있었는데 행정상 보고 등 각 보고가 있는 후 시국문제, 자치, 교육, 군사, 재정, ○○결산, 예산, 인선에 대한 장시간의 토의를 한 결과 결의된 案은 아래와 같다더라. 결의안 一. 시국문제 (가) 만주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부는 양부와외의 통일을 적극 圖成하기로 함. (나) 전민족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유일당 축성을 籌備하기로 함. (다) 중국에 입적하지 못한자는 입적케 하고 기 입적한 자는 시민권 획득을 장려노력케 하기로 함. (라) 농민부인청소년운동을 일류적 규율하에서 그 발달을 기함.’ 이

각 독립운동세력은 1928년 5월 12일부터 18개 단체대표 39명과 30명의 방청객이 모인 가운데 화전현에 있는 華興學校에서 제1차 전민족유일당축성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지청천은 고할신, 양세봉, 金文舉 등과 함께 정의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러나 5월 26일까지 3차에 걸쳐 계속된 회의에서 만주지역의 각 운동세력은 크게 보아 유일당에 대한 조직 방식을 놓고 단체본위조직론과 개인본위조직론 등이 대립하면서 결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체본위조직론은 민족유일당이 다수의 소운동단체를 기초로 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정의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진영 계열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본위조직론은 기성의 군소단체를 본위로 해서 유일당을 조직할 경우 기성단체 중에는 남을 인솔할 만한 실력과 권위를 갖춘 단체가 없으며, 또한 지방적 파벌에 의해 당파전의 소굴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일당은 개인본위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체로 개인본위조직론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산하의 사회주의계열의 단체들이 다수 찬성하고 이들은 축성회파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⁷⁾

그러나 민족유일당운동이 초반의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 없이 전개되자 지청천은 1928년 8월 제 5회 정의부 중앙의회에서 자신이 정의부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고,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는 한편, 정의부에서의 직무를 포기하였다.²⁸⁾

민족유일당축성회의와 3부통합운동이 성과없이 결렬되자 지청천은 혁신의회에 참가했는데 혁신의회는 1928년 12월 하순 길림에서 존속기간 1년의 군정부 건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었으며,²⁹⁾ 결성 당시 회장에는 김동삼, 중앙집행위원장에는 金元植, 군사위원장에 황학수, 군사위원에는 지청천, 민정위원장에 金承學이 취임했으며, 지청천, 김승학, 신숙 등 16명이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⁰⁾

또한 혁신의회에서는 民族唯一黨在滿策進會를 조직하여 민족유일당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정의부 탈퇴파에서는 지청천, 김동삼, 김원식, 金尙德 외 4명이 참의부에서는 金希山, 金篠廈 외 2명이, 신민부에서는 김좌진, 황학수, 金時野, 崔灝, 鄭信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¹⁾ 이

보도에서만 보아도 정의부에서는 시국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3부통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27) 黃敏湖, 「滿洲地域 民族唯一黨運動에 關한 研究-唯一黨促成會議를 中心으로-」, 『崇實史學』5, 1988 참조.

28) 지복영, 앞의 책, 181쪽, 454쪽.

29) 황민호, 『재만한인사회와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8, 102쪽.

30)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151쪽.

31) 慶尙北道警察局, 『高等警察要事』, 1927, 127쪽.

후 책진회는 중앙집행위원장에 김동삼, 동 위원에 김좌진, 全盛鎬 등을 선출하고 大黨促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체로 혁신의회는 김좌진, 김승학, 홍진, 지청천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여기에 일부 사회주의계열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³²⁾

그리고 이와 같이 조직된 혁신의회에서는 참의부 관할구역을 南一區, 정의부에서 탈퇴한 지청천과 김동삼 등의 관할구역을 中一區, 신민부 관할구역을 北一區로 나누고 대당촉성의 적극적 봉조, 軍事善後 및 敵勢侵入의 防止, 합법적 자치기관(同鄉會)조직, 잔무정리를 목표로 활동하였다³³⁾.

그러나 1년을 기한으로 하여 군정부를 결성하고자 했던 혁신의회는 1929년 4월 남만에서 國民府가 결성되자 더 이상의 활동이 곤란해졌으며, 좌우연합적 조직이라는 한계 등으로 이해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혁신의회는 1929년 5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조직을 해산하였고 책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³⁴⁾ 그러나 책진회의 경우도 만주 각지에서 모인 간부들이 오래동안 근거지를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좌진과 김시야는 북만주로, 지청천은 五常縣으로 김승학과 박희근, 이백파 등은 남만주로 돌아가자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청천은 1920년대 후반 이후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족진영은 물론 좌·우익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결성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IV.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지청천

1) 한국독립당·군의 결성

혁신의회의 활동 이후 북만으로 돌아온 지청천은 일종의 농업주식회사인 생육사를 조직하고 활동하기도 했으며,³⁶⁾ 그는 크게 보아 한인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독립당과 한

32) 황민호, 앞의 책, 102-103쪽.

33) 「革新議會」, 大韓民國光復會, 『獨立運動大事典』, 763쪽.

34) 國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5, 探求堂, 1968. 732쪽.

35) 愛國同志援護會, 『韓國獨立運動史』1956, 275쪽.

36) 북만으로 돌아온 지청천은 1929년 五常縣 沖河를 근거지로 生育社를 조직했는데 1930년 2월 13일 길림 春登河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을 때 190株를 농도를 조차하여 경영했다고 한다. 이 생육사는 후일 한족총연합회와 같이 한국독립당의 모체가 되었다.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池青天」,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국독립군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당시 북만지역의 한인공산주의자들은 김좌진을 암살한 후 계속해서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1930년 6월 18일에는 山市에 있는 한족총연합회의 근거지를 습격하여 그 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연합회의 간부 박경천·김종진·이을규 등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³⁷⁾

이러한 가운데 한국독립당의 총무위원장과 정치부위원으로 활동했던 李圭彩³⁸⁾는 자신의 재판기록에서 북만지역에서의 민족진영과 한인공산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한국독립당의 결성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1930년을 전후하여 舒蘭縣에서 이장녕, 박일만 등과 교유하며 농장을 개간하고자 했으나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주도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고 이들로부터 민족주의자임으로 박멸하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危害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중국관헌의 보호 하에 榆樹縣으로 도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유수현으로 도피하여 동지들을 규합, 공산주의자들과 대등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던 이규채는 이 과정에서 신속으로부터 5월 5일에 중동선 二道河子에 있는 朴觀海의 집에서 한국독립당의 결성을 위한 준비회가 개최될 것이며, 7월에는 일단 당이 조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규채는 6월 중순 이도하자로 갔으나, 이미 한국독립당의 준비회는 끝나고 朴觀海, 鄭信, 申肅, 崔, 李章寧 등을 중심으로 당의 결성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하였다.³⁹⁾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독립당은 1930년의 간도봉기를 전후하여 한인공산주의자들의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승학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5개월간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서 이론체계와 조직체계를 완전 정비하여 表面自治體와 裏面核心機構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表面自治體를 軍民議會라 하고 裏面核心體를 韓國獨立黨이라 하여 獨立運動의 最高指導權을 가지게 하고 各部에 소속해 있던 軍隊는 精粹分子를 擇하여 獨立黨軍으로 편성하였는데 … 이상과 같은 陣容으로 막 활동을 개시하려 할 때에 또다시 大打擊을 받았으니 … 倭敵에게 被殺되고 共產主義者들에게 虐殺되어 도저히 再起不能의 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李青天·洪震·黃學秀·申肅·吳光鮮·沈萬浩·李章寧·安旭·李元芳·

37) 堀内稔, 「韓族總聯合會について」, 『朝鮮民族運動史』9, 1993, 43쪽.

38) 국가보훈처,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5卷, 1988, 700~701쪽.

39)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43, 2000.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2회)」, 1935년 1월 9일.

李宇精·崔岳 등은 다시 용기를 내어 北滿에서 黨勢를 擴張하게 되었는데 ...⁴⁰⁾

위의 내용에서 보면, 한국독립당은 裏面의 핵심체로서 독립운동의 최고지도권을 갖는 기관으로 결성되었으며,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의해 타격을 받았으나 지청천·황학수·홍진 등이 다시 용기를 내어 黨勢를 확장하였고, 당이 결성될 때 精銳分子를 택하여 한국독립군도 편성하였다 고 하여 당의 결성과정에서 지청천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규채는 한국독립당은 당을 결성한 이후 군사부를 개칭하여 한국독립군이라 하였으며, 당원 중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보통학교를 졸업 정도의 우수한 인력을 군에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直接行動을 취하기 위한 조직으로, 1930년 11월 결성되었고 병력은 1개 소대에 50명씩 6개 소대, 2개 중대로 편성된 300명 정도의 규모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⁴¹⁾ 이밖에 이규채는 창립대회 개최와 토의사항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문 대회에서 어떤 것을 토의하고 결정했는가.

답 대회에서 사회자로 申肅을 선정하고, 임시서기로 閔武를 선정한 뒤에 선언으로

一, 백의동포는 소련공산당에 속지 말자.

一, 백의대중은 일치 협력하여 조국의 광복을 도모한다.

강령으로서

一, 조선의 정치독립

一, 조선의 경제독립

一, 조선의 문화독립을 제정하고,

이에 六대 강요로서

一, 입헌민주국으로 한다.

二,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한다.

三, 신문화 학술을 수입한다.

40) 金承學, 『韓國獨立史』 362-363쪽.

41)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1935년 1월 31일 '문 위와 같이 하여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피고인은 각 임원과 협의하여 군사부는 그것을 한국독립군이라 일컫고, 당원 중에서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사람으로 우수한 분자를 선발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당이 목적하는 조선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을 취하기로 했는데 어떤가. 답 그렇다. 군사부를 개칭하여 한국독립군이라 하고, 당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직접행동을 취할 방침을 결정한 것은 틀림없으나, 원래 독립군은 滿洲 각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원의 포획이 심했으므로 그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집했던 바, 그것이 300여 명에 달해서 더욱 그것을 확대하여 조선독립운동 실행을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문 독립군 편성 당시는 그 수효가 약 300명으로서 2개 중대, 6개 소대를 편성했는데 그런가. 답 그렇다.

四, 약소민족과 제휴한다.

五, 각지의 민족단체와 연합한다.

六, 국민의 교육은 의무적으로 한다 등을 결정한 뒤에

조직은 집행위원제로 하고,

부서로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군사부, 선전부, 조직부를 설치하여 중앙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에 각지의 당부, 지부 반을 조직하여 각각 집행기관을 설치하여 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중앙기관 이하의 지방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一, 지방당부는 중앙기관과 마찬가지로 상무위원 六명을 둔다.

一, 지부에는 군사부만 두지 않고, 다른 五부를 두며 상무위원 五명을 선임한다.

一, 반에는 문화, 경제, 조직의 三부를 설치하고 상무위원 一명을 선임하여 각각 집행을 담당하는데, 중앙기관에는 집행위원 三〇명이요, 그 중 상무위원은 一二명으로 되어 있었다.⁴²⁾

위의 내용에서 보면 한국독립당의 창립대회는 우선 ‘백의동포는 소련공산당에 속지 말 것과 일치 협력하여 조국광복을 도모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한국독립당이 소련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조국의 절대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진영의 조직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6대 綱要에서는 입헌민주주의와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및 의무교육의 실시 등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건설될 독립국가의 면모를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창립대회에서는 한국독립당의 黨首⁴³⁾로는 洪冕熙를 선출하고 정치부장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정치부위원에는 이규채, 경제부장 崔, 문화부장 申肅, 선전부장 鄭信, 조직부장 朴觀海, 군사부장에는 지청천을 선출하였다.⁴⁴⁾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을 담당할 인물도 정했는데 朴觀海·申肅은 阿城, 濱州지방을 담당했으며, 閔武·鄭信은 寧安, 李章寧은 五常, 舒蘭은 崔·朴世晁은 方正, 李青天·李圭彩는 榆樹를 담당하였다.

2) 한중연합전선과 대전자령전투

한국독립군은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11월 2일 吉林省 大石河子에서 긴급 중앙회의

42)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1935년 1월 31일.

43) 앞의, 京城地方法院刑事部, 「李圭彩 공판조서」, 1935년 2월 26일에서는 ‘당수 겸 정치부장에 洪震, 군사부장에 李青天, 선전부장에 鄭信, 조직부장에 朴觀海, 경제부장에 崔塢, 문화부장에 申肅이 각각 선임되어 취임하고, 나는 정치부원 겸 군사부참모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였다.

44) 앞의, 「李圭彩 신문조서(제二회)」.

를 개최하고 첫째, 各軍區에 총동원령 내려 軍事行動을 개시할 것, 둘째, 黨內 일체의 공작을 軍事方面에 집중할 것, 셋째, 吉林省 抗日軍事 당국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韓中合作을 상의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⁴⁵⁾ 그리고 11월 10일에는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장병의 召集과 徵募활동에 들어갔으며,⁴⁶⁾ 이때 黨에서는 군사위원장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여 한국독립군의 편제를 강화하였다.⁴⁷⁾

또한 한국독립군은 중국군과의 한·중연합작전의 전개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일제의 침탈과 중국군의 박해라는 이중적 곤경에 처해 있는 한인사회를 보호하고 한국독립군의 전투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독립당에서는 1931년 11월 12일 신숙과 남대관을 중국 護路軍聯合軍總部에 파견하여 양측의 연합작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⁴⁸⁾ 賓縣政府의 主席인 誠允과의 논의를 통해 무기와 군자금의 지원 및 한국독립군의 독자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한편 한국독립군은 대규모 병력이 한곳에 집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寧安縣 동쪽(嶺東)과 서쪽(嶺西)으로 나누어 활동하였으며,⁵⁰⁾ 따라서 부대 편제는 단위부대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성을 견지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중국군과의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⁵¹⁾

한편 이청천의 한국독립군은 1932년 1월 大石河에서 개최된 임시대회 이후 延樹縣에서 길림자위군의 王之維와 연합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하기로 결의한 뒤, 독립군 총사령 李靑天은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재래의 독립군을 소집한 결과 인원 六〇명에 달했으므로 그것을 우선 一대로 조직 편성하여 吉林省 자위군 王之維가 인솔하는 약 一〇만군과 연합하여 전투하여 黑龍江으로 향하여 퇴각하는 도중에 중국군의 王之維는 귀화하고, 잔병 약 五만군과 함께 黑龍江까지 가서는 할 수 없이 日·滿군의 토벌을 받아서 승산 없이 패산하여, 소화 七年 八월에 阿城으로 李靑天은 약 四〇〇여명의 독립군을 인솔하고 되돌아왔다.⁵²⁾

위의 내용에서 보면 지청천은 임시대회 이후 각 지방에 산재한 6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길림자

45) 一靑,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東北殺敵將史」, 韓國光復軍司令部編, 『光復』제2권 제1기, 53쪽. 蔡根植, 앞의 책, 157쪽.

46) 앞의, 『光復』제2권 제1기, 53쪽.

47) 앞의, 『독립운동사』5, 599쪽.

48) 앞의, 『光復』제2권 제1기, 53쪽.

49) 박환, 「재만한국독립당에 대한 일고찰」, 『韓國史研究』 제59호, 1987, 151-152쪽.

50) 丁慧芝·胡淑英·李秉剛 編, 『東北抗日義勇軍史料匯編: 吉林分冊』 321쪽.

51) 앞의, 『독립운동사자료집』10, 612쪽.

52)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三회)」, 1935년 1월 21일.

위군의 왕지유가 이끄는 10만의 병력과 연합하여 흑룡강까지 진출, 항일전을 전개했으나 왕지유가 변절하고 일·만군의 공격을 받아 상황이 어렵게 되자 중국군 패잔병 5만과 함께 퇴각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지청천은 전투에서 패하여 아성현으로 돌아오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400명의 독립군 병력을 모집해 오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한국독립군 총사령으로서 갖고 있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와 지도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제는 한국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지청천, 오광선, 김창환, 이규채 등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³⁾

또한 1932년 5월 초순 경 이규채는 安海崗고 함께 阿城에 있는 吉林自衛聯合軍 총지휘관 楊曜鈞⁵⁴⁾을 방문하여 길림자위연합군 제3군(軍長 考鳳林)과의 연합을 성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七년 五月 중순경에 李靑天이 黑龍江省에서 돌아오기 전인데, 대대장 吳光善은 黑龍江省에서 먼저 돌아왔으므로 吳光善과 부사령 金昌煥을 불러서 잔류하여 독립군을 소집하라고 명했던 바, 군인 약 六〇명을 모집해 왔으므로 제3군 내의 한국군인 부대를 편성했다. 우선 李靑天이 귀환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阿城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동년 八月 一일경에 李靑天이 黑龍江省에서 약 四〇〇여명을 인솔하여 귀환했으므로 그것과 함께 편성하여 제3군과 연합하여 阿城을 방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⁵⁵⁾

위의 내용에서 보면 양측의 연합은 지청천이 흑룡강성에서 돌아오기 전 성사되었으며, 이에 한국독립군은 부사령 김창환과 흑룡강성에서 먼저 돌아온 대대장 오광선이 소집한 60명의 대원을 중심으로 제3군 내에 한국부대를 편성하여 지청천이 귀환할 때까지 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흑룡강성에서 400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귀환하자 제3군(軍長-考鳳林)과 연합하여 阿城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60명 정도의 한국독립군이 10만명에 이르는 길림연합자위군과 합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규채는 ‘중국 군인은 무식한 사람뿐으로 상관은 나쁜 일을 하지 않지만 병사들이 멋대로 하는 반면, 조선인은 모두 상당한 학문도 있고 소행도 좋기 때문에 반갑게 환영’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었다.⁵⁶⁾

53) 조경한, 「지청천 장군과 광복군(하)」, 『세대』 1970년 11월호, 299쪽.

54) 楊曜鈞은 중국 육군 중장이며, 연합군은 3군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10만이었다고 한다.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이규채 신문조사」, 1935년 1월 31일

55)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사(제3회)」, 1935년 1월 21일.

56) 앞의, 京城地方法院檢事局, 「이규채 신문조사」, 1935년 1월 31일.

한편 위의 내용은 제1차 쌍성보전투가 끝나고 난 후에 개최된 한국독립당과 군의 간부연석회의에 대한 이규채의 증언인데 이를 통해서 보면 당시 한국독립군 내부에서는 중국 관내로의 이동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총사령 지청천은 액목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王德林과 연합하여 계속해서 항전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규채 등은 한인들의 안정과 생계대책이 중요하며,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더 이상 승산이 없으므로 중국관내로 들어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견이 양분되자 연석회의에서는 이규채를 선발대로 관내에 파견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한국독립군은 현지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다 패하면 관내로 이동할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⁷⁾

이후 한국독립군의 이청천 이하 400여명의 병력은 8월 15일에 전개되었던 쌍성보 제1차 전투에서의 승리하였으며, 그 여세를 몰아 9월 하순에 다시 雙城堡 제2차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이 전투에서는 일본 공군기의 폭격으로 피해를 입고 同賓縣으로 퇴각하였다.⁵⁸⁾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일본군의 대공세를 견디지 못한 고봉림이 투항하고 휘하 부대가 흩어지게 되자 한국독립군은 이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항일투쟁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⁵⁹⁾ 이에 한국독립군은 10월 23일 다시 군사회의를 개최하고 심만호, 孔震遠, 姜鎮海, 馬蒼仁을 동녕현의 中國國民救國軍에 파견하여 합작문제를 협의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듬해 1월 중국 구국군 보병 제8연 23단(團長 柴世榮)과 연합한 中韓聯合討日軍이 편성되었다.⁶⁰⁾

이후 한국독립군은 1933년 1월에는 시세영부대와 연합하여 영안현 黃家屯에 있는 조선인 자위단을 공격하였으며, 4월에는 영안현 柳家屯의 만주인 자위단을 습격하기도 하였고 5월 중순에는 영안현 馬蓮河에 주둔 중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5시간 동안 교전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¹⁾

시세영부대와와의 연합하게 된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하에 1933년 7월 대전자령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우선 이 전투는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이 일반적으로 일본군의 토벌에 쫓기면서 벌인 전투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 조선으로 귀환하던 간도임시파견대를 선제공격한 전투였다는

57) 앞의, 京畿道警察部, 「李圭彩 신문조서(제3회)」, 「雙城堡를 제一回 습격하고 귀환했을 때에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는 전후책을 강구하기 위한 독립군 장교회의도 되고, 독립군 간부회의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총사령 李青天은 아직도 계속해서 額穆縣 중심으로 자위군의 王德林 軍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들과 연합하여 싸우자고 주장했고, 나는 지금은 독립당에서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위군에서도 양해하고 조선인 동포에는 위해를 가하지 않아서 조선인 농부는 모두 수확을 끝내고 식량을 수습하여 피난했기 때문에 생활에는 도움이 되었고, 또 정세를 보더라도 日·滿軍과 싸워도 승산이 없고 참패할 것이 틀림없으니, 그것을 중지하고 중국본토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李青天 등 장교들은 참패로 끝날 때까지 반항하여 싸우자고 주장하므로, 그러면 나는 먼저 중국 본토로 가서 자금을 조달해 보낼 것이니 끝까지 싸우다가 패배하거나 본토로 도피해 오라고 약속하고 결정했던 것이다」.

58) 앞의, 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이규채 청취서(제3회)」, 1934년 12월 8일.

59) 앞의,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252쪽.

60) 한상도, 앞의 논문, 773쪽.

61) 앞의, 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이규채 청취서(제3회)」, 1934년 12월 8일.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로 대전자령전투에서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는데 ‘박격포와 각종 포 8문, 경·중기관총 110자루, 소총 580자루, 탄약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상자당 50개), 권총 및 연발총 200자루, 도검 40자루, 군용 비밀지도 만주 및 연해주 1/100,000지도 2,000여 매, 만주침략 관련 각종 비밀문서와 군용서류, 陣中 장부 300여 부, 피복·담요·기타 군 장비 부속품 등 2,000여 건, 장갑차 2량, 탐조등 2기, 약품 50상자, 망원경 25개, 1개營(대대급 부대)이 1년 동안 급양할 수 있는 식량 등’을 노획했다는 기록⁶²⁾도 있고 ‘군복 3,000벌, 군량문서·기타 군용품은 실은 우마차 200대, 대포 3문, 산포·박격포 10여 문, 담요 3,000장, 소총 1,500정’을 노획했다는 기록도 있다.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노획물의 규모로는 독립군이 일본군과 치른 전투 가운데 전례가 없는 대승 거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⁶³⁾

그리고 지금까지 대전자령 전투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독립군에게 대패했던 일본군대가 기존에 알려졌던 羅南 주둔 72연대인 飯塚朝吉(이즈카)부대가 아니라, 제19사단 예하 會寧 주둔 보병 제75연대 부대장 池田信吉(이케다)를 중심으로 편성한 부대였으며, 약 1,500여명의 병력 규모였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⁶⁴⁾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선중앙일보』 등의 언론 보도기록과 기타 일본측 자료를 인용하여 대전자령전투의 실재를 논증⁶⁵⁾하는 한편, 대전자령 전투가 조정한의 회고를 중심으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조정한이 한국독립군에게 참패한 일본군 부대의 이름을 飯塚부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회고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⁶⁶⁾

62)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論』 창간호, 1933, 71-72쪽.

63) 조정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회, 1990, 131쪽. 지현모, 『청천장군의 혁명투쟁사』, 삼성출판사, 1949, 145쪽.

64) 張世胤, 「韓國獨立軍의抗日武裝鬪爭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장세윤,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9. 이 논문에서는 ‘나남 주둔 72연대 飯塚聯隊가 아니라, 당시 羅子溝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부대는 한국주둔 제19사단 예하 會寧 주둔 보병 제75연대의 혼성연대이며, 연대장 池田信吉 大佐를 대장으로 하는 간도파견부대였으며, 이 부대는 제19사단 管下 步·騎·砲·工兵 등의 혼성 2개 대대와 池田이 거느리는 주력부대 등 약 1,300여명 규모’였음을 밝혔다. 부대의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준식, 「항일운동사에서의 대전자령전투의 위상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자령전투』, 20-22쪽, 2013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65) 이준식, 앞의 논문, 15-22쪽, 2013. 당시 「羅子溝의 피난민, 도중에 습격되어, 30명 사상, 1,600명 四散」, 『조선중앙일보』 1933년 7월 9일자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조선군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회령발 羅子溝 수비대로부터 환송 화물 보호를 하려고 지난 6월 26일 百草溝를 출발한 石井 조장 지휘의 27명은 29일 나자구에 도착 30일에 준비를 하여 가지고 오전 3시에 하차 1백 대로 백초구를 출발하였는데 일행에는 나자구로부터 피난하는 피난민 약 4천과 피난민의 우마차 5백 대와 같이 7월 1일 局子街에 도착하고 동월 6일 오전 6시 30분에 회령에 귀착하였는데 同隊 호송 중 전투 상황은 6월 30일 오전 6시 太平溝 부근에서 약 4천의 패잔병과 교전하여 이것을 퇴각하고 동월 오후 3시 40분경에 다시 구국군 4백과 교전하여 다시 퇴각하고 7월 1일 오전 8시에 張家店 부근에서 약 3백의 구국군과 교전 1시간을 하여 퇴각하고 2일 오전 2시 노령 부근에서 4·5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하여 퇴각하고 4일 오후 5시 花家店에서 약 8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 격퇴하고 3일 오전 6시 화가점 서방에서 약 7십 명의 패잔병과 교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 패잔병이 유기한 사체 1백, 일본 부상 병대 2명, 화물 자동차 1대를 소실, 하차 14대 행위불명, 속행 피난민 20명 사망하고 경상 2명, 행위불명 50명, 병사자 40 명, 우마차 1백 대 행위불명으로 백초구에 도착할 때에는 4천 명의 피난민이 사산 또는 패잔병에게 납치되었다.

66) 이준식, 앞의 논문, 17-20쪽. 이준식은 대전자령전투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韓國獨立軍與中國義勇軍聯合抗日記實」, 『革命公

그런데 지청천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飯塚부대를 전멸시켰다는 기록은 조경한의 회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보이고 있다.

1) 光復軍總司令李青天將 歷

李字白山, 京城人, 現年五十三歲. 二十五歲畢業於日本陸軍士官學校步兵科, 服務於日軍, 以大尉職. 青島之役後脫出軍隊, 至遼寧省柳河縣, 在韓人所設新興軍事學教內任教職. 三十四歲任高麗革命軍官士學校校長, 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軍事部長, 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鴨綠江沿岸各地. 九一八後, 被任爲韓國立軍總司令, 合東北抗日軍共同作, 吉林省汪清拉子○一役, 使日軍飯塚隊全軍覆滅. 一九三三年應洛陽軍教之聘, 訓練韓籍軍官, 任韓國革命軍部長, 臨時政府軍務部長, 韓國獨立中央執行委員兼訓練部主任.⁶⁷⁾

2) 光復軍總司令李青天將略歷

李字白山, 京城人, 現年五十三歲. 二十五歲畢業於日本陸軍士官學校步兵科, 服務於日軍, 以大尉職加. 青島之役後脫出軍隊, 至遼寧省柳河縣, 在韓人所設新興軍事學教任教職. 三十四歲任高麗革命軍官士學校校長, 繼任正義府中央執行委員軍事部長兼朝鮮義勇軍司令, 率軍轉鴨綠江沿岸各地, 九一八後, 被任爲韓國獨立軍總司令, 聯合東北抗日軍共同作, 吉林省汪清拉子全一役, 使日軍飯塚隊溝軍覆滅. 一九三三年應洛陽軍教之聘, 訓練韓籍軍官, 任韓國革命軍事部長, 臨時政府軍務部長, 韓國獨立中央執行委員兼訓練部主任.⁶⁸⁾

위의 두 자료는 모두 지청천의 약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1)은 臺灣의 국사관이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1940년 9월 18일 '重慶大公報 3판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필사한 것이며, '抗戰史料'로 정리해 두었던 것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15년에 수집한 것이다.⁶⁹⁾ 또한 2)는 1941년에 한국광복군총

論」창간호, 1933.이며, 이글은 조경한의 것으로 보이며, 조경한의 글은 중국잡지인 『中華雜誌』 제1권제4기(1934)에 다시 실렸다. 그리고 『신한민보』에도 「동북통신 한국독립군과 중국의용군의 연합항일실기」라는 제목으로 1933년 12월 28일부터 1934년 1월 18일까지 4회에 걸쳐 일부가 한글로 번역되어 실렸다. 그리고 조경한의 회고는 一書, 「九一八後韓國獨立軍在中國東北殺敵略史」, 『光復』 제1권 제2기(1942)으로 이어지며, 해방 후에는 조경한, 「지청천장군과 광복군(상)·(하)」, 『세대』 1970년 10월·11월호, 조경한, 「대전자 대첩」, 『군사』1, 1980, 조경한, 『백강회고록』, 종교문제협의회, 1990 등의 회고록을 남겼다고 하였다.

67) 「抗戰史料李青天將軍略歷」, 국사편찬위원회 2005년 수집자료, 소장처, 대만 國史館

68) 「光復軍總司令李青天將軍略歷」, 『光復』 第1卷 第1期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 1941. 21-22쪽.

69) 이 자료 앞면에서는 「錄自中華民國二十九年九月十八日重慶大公報三版」이라고 되어 있다. 『大公報』는 중국의 대표적 신문으로서 1902년 6월 天津에서 창간되었으며, 처음 天津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天津大公報」로도 불렸다. 1936년에는 上海版을 발간하였고, 항일전쟁 기간에는 홍콩·漢口·重慶에서도 간행되었다. 1926~49년까지는 국민당 계열에 속했다. 발행부수는 10만부 정도를 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독자는 거의 지식계층이었다. 편집장 張季鸞(1888~1941)은 「親韓派」로서 1930~40년대 국민당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장세운, 『20세기 초반 주요 중국 언론의 한국 독립운동 인식 - 홍콩 華字日報·天津 大公報·上海時報·申報를 중심으로』

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광복』 제1권 1기에 수록된 것이다.⁷⁰⁾ 그리고 이 기록들은 각각 몇 군데에 誤字와 脫字가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만주사변 직후의 지청천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청천은 9·18후 한국독립군총사령에 임명되어 동북의 항일군과 연합, 공동작전을 벌였으며, 길림성 왕청현 납자구(나자구-필자)에서 한번 싸워, 일본군 飯塚聯隊 全軍을 覆滅(철저히 없앴-필자)케 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공보』 중경판의 보도는 『광복』에 수록된 것 보다 시기적으로 빠르며, 특히 『대공보』가 9월 18일을 기해 지청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전자령전투는 조경한만의 기억이 아니라 당시 중국 언론과 임시정부가 모두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인정하고 있던 승리였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겠다.

한편 대전자령전투 이후 한중연합군은 전리품의 분배와 이념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내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채로부터 이동자금이 전달됨에 따라 지청천은 조경한, 오광선, 공진원, 김창환 등의 중요 간부들과 사병 가운데 선발된 군관학교 입학지원자 등 40여명과 함께 북경을 거쳐 중국관내로 이동,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⁷¹⁾

V.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군사학을 배우겠다는 지청천의 일념을 처음부터 국가의 독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3·1운동 직후 김경천과 부대를 탈출 만주로 망명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로 탈출한 지청천은 한족회가 설립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압록강을 건너

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75, 2013.

70) 이 부분에 대해 독립기념관(<http://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는 백산(白山), 경성인. 현재 53세, 25세 일본 육군 사관학교 보병과를 졸업, 일본군에서 복무했다. 대위의 신분으로 청도(靑島)의 역에 참가하였으며, 후에 군대를 나와 요녕성(遼寧省) 유하현(柳河縣)에 이르러, 한인이 설립한 신흥군사학교에 교직원으로 일했다. 34세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정의부 중앙 집행위원회에 임명되었으며, 군사부장 겸 조선의용군 사령을 겸하였다.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 연안 각지에서 전투하였으며 9·18 후 한국 독립군 군사령으로 임명되었다. 동북의 항일군을 연합하여 공동 작전을 벌였으며,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무덤을 도굴하려는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1933년 낙양 군사학교의 초빙에 응하여 한국인 군관들을 훈련시키고, 아울러 조선혁명당군사부장과 임시정부 군무부장, 한국독립당 중앙 집행위원 겸 훈련부 주임을 맡았다'

71) 조경한, 『백강회고록』, 종교문제협의회, 1990, 212쪽.

국내로 진공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였으며, 서로군정서의 사령관으로서 경신 참변 이전까지 서로군정서의 군사활동을 지휘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정의부에 참여했던 지청천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장과 의용군 총사령 및 심판원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압록강연안 각지에 군대를 이끌고 군사작전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유일당운동에서는 정의부의 중심노선이었던 단체분위조직론을 거부하며 정의부를 탈퇴하였고 이후에는 혁신의회에 참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군정부를 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혁신의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근거지를 북만으로 옮겼으며, 1930년에 한인공산주의자들의 민족진영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한국독립당의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휘하의 한국독립군총사령이 취임하였다.

이후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지청천은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항일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규채의 재판기록을 통해서 보면 지청천의 활동에 대한 일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쟁 직후 지청천은 한중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한국독립군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한인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60명의 병력을 이끌고 10만여명의 중국군의용군과 연합하여 흑룡강까지 진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패전하여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400명의 대원을 인솔하여 돌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고봉림부대와 연합한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의 지휘 하에 쌍성전투에서 승리하였으며, 시세영부대와 연합해서는 몇 번의 소규모 부대전투에서 승리하는 전과를 올리는 한편,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는 전과를 올렸다.

지금까지 대전자령전투에 대해서는 주로 전투에 참가했던 조경한의 기록에 의존하여 설명되어 왔으며, 그 규모나 전투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전자령전투를 이후 국내외에서 보도되었던 언론자료의 내용과 일본군측의 자료를 검토하여 일본군 간도임시파견대가 한중연합군에게 패전하였다는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는 중경에서 발행되던 『대공보』가 1940년 9월 18일자의 보도와 1941년 한국광복군정훈처에서 발행한 『광복』에 게재된 지청천의 약력에 관한 기록에서 모두 지청천이 대전자령전투에서 승리했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전자령전투는 조경한의 체험과 기억일 뿐만 아니라, 당시 중경의 독립운동세력과 중국언론이 모두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승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자령전투 이후 한국독립군은 다양한 문제로 중국군과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규채로부터 관내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도착하자 북만주를 떠나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지청천은 관내에서 임시정부와 함께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항일무장투쟁의 길을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토론문

이준식(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황민호 교수는 주지하듯이 만주지역 무장투쟁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황민호 교수의 오늘 발표는 지청천이 일본군을 탈출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된 이후 만주를 떠나 중국 관내로 들어가기 까지 만주지역에서 벌인 무장투쟁의 과정 및 역사적 의미를 잘 정리하고 있다. 토론자로서는 발표문의 전체 논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론이 없다. 다만 평소 토론자가 갖고 있던 의문과 관련해 다음의 몇 가지를 물어보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지청천의 일본육사 선배이자 망명 동지인 김경천의 인터뷰 기사나 김경천이 남긴 회고록 『경천아일록』을 여러 군데서 인용하고 있다. 김경천 관련 자료는 김경천과 지청천의 망명 과정이나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경천아일록』의 경우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해 몇 차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실제로 발표문에서도 “올해(1919년-토론자)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가 독립선언을 이후로 그것을 전부 폐지하고 군사학을 시작한 것이니 범사에 매우 유약하다”는 김경천 회고를 인용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신흥무관학교가 3·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김경천과 지청천이 교관을 맡기 이전에는 ‘범사에 유약’했을까? 분명히 신흥무관학교는 설립 이래 대한제국 군대 장교 출신의 교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경천이 이런 회고를 한 데는 일본육사에서 제대로 된 군사학을 배운 자신들이 교관을 맡으면서 신흥무관학교의 군사교육이 한층 더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만약 그렇다면 “신흥무관학교는 3·1운동 이전에는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3·1운동 이후 보통교육 전부를 폐지하고 군사학에 집중하는 무관학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서술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신흥무관학교가 김경천과 지청천이 교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군사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

었다는 전제 아래 두 사람이 신흥무관학교에 온 뒤 군사학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를 보여주는 사료를 찾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김경천과 지청천의 만주 망명,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취임이 만주지역 무장투쟁사에서 갖는 의미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망명지로 만주를 선택하고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간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청천은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초 지청천은 노령으로 들어가 소비에트러시아와의 연대를 모색했고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 참가한 이후에도 김규식 등과 함께 노령에 들어가 임시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려고 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데 노령과 상하이에서의 지청천의 활동을 만주지역의 무장투쟁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넷째, 발표문에서는 한국독립군의 활동과 관련해 이규채의 신문조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간부로 활동하던 이규채는 일본경찰에 체포된 뒤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그 기록이 대부분 남아 있다. 당연히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이규채의 신문조서가 자료집으로 공간된 뒤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판결문도 아니고 신문조서를 적힌 그대로 인용하는 데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신문을 받는 피의자로서는 형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책임질 만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규채의 신문조서도 마찬가지이다. 발표자는 이규채의 신문조서를 통해 쌍성보 전투가 끝난 뒤 열린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연석회의에서 항전파와 중국 관내로의 이동파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쓰고 있다. 나는 혹시 정말 한국독립군(당) 안에서 의견의 분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만주사변을 독립전쟁의 호기라고 여기던 군인 출신들과 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주민생존권 차원의 자치를 중시하던 민정파(?)의 대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한국독립군이 출범한 뒤에는 민정파(?)인 이규채가 한국독립군의 간부가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독립당 안에서 독립전쟁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한다. 따라서 실제로 이규채가 말한 의견대립이란 경찰과 검찰에게 자신이 무장투쟁을 반대한 온건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된 진술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만주지역 무장투쟁의 상황에 밝은 발표자가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에 만주 독립운동 진영 안에 무장투쟁 노선과 재만한인 생활 안정 노선 사이의 분화 내지 대립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김학규의 재만 무장투쟁과 한국광복군활동

김삼웅(전독립기념관장)

혈서 쓰고 무장투쟁 입신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재평가 우량주’ 인물 중의 한 분이 白波 金學奎 장군이다. 김학규는 문무를 겸비하고,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무장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제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해방 후 귀국해서는 이승만 정권에서 엉뚱하게 백범 김구 암살 배후로 몰려 옥고를 치른 비운의 독립운동가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변변한 논문 한 편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1900년 평남 평원군 서해면 사신리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학규는 20세 되던 해 국치를 당하게 되자, 가족과 함께 1911년 12월 만주로 이주하여 통화현 이밀(二密)이라는 계곡에서 황무지를 일구며 살았다. 열심히 땅을 파고 경작하여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부농이 되었다. 1919년 국내에서 3.1혁명의 봉화가 타오르고, 만주 곳곳에서도 동포들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김학규는 손가락을 칼로 베어 피를 내어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혈서를 쓰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압록강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하룻동안 행군하였을 때에 한족회(당시 만주한교자치기관) 중앙으로부터 행군 정지명령이 내려왔다.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청년 혈기로써 왜적에게 달려드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 무모한 일이라는 것이었다.¹⁾

이것이 김학규의 파란만장한 무장 독립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첫 ‘봉기’는 비록 좌절되었으나, 그의 미는 적지 않았다. 의기에 넘치는 청년 김학규는 혈서를 쓰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고, 일제 패망 때까지 독립운동의 뜻을 한 번도 접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차에 걸쳐 실전을 치렀다.

1) 「백파자서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84~585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김학규는 그 길로 통화현 합리하에 자리잡은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 입교하였다. 김학규는 이 해 겨울에 속성과를 졸업하고, 만주에 조직되어 활동중인 한국의용대에 파견되었다. 여기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활동중에 1920년 가을 남북만주에 대한 일제의 대학살작전으로 부대가 해산되었다.

일본군이 한인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를 자행할 때 김학규는 적에게 포위되었으나 용케 탈출하여 살아남았다. 이 무렵 영국인 목사의 소개로 봉천 신민현에서 영국인 목사 오멜브나(Mr Omelvena)가 경영하는 문화고급학교에 들어가 영국인의 보호하에 6년 동안 중국문학과 신학문을 학습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교포들이 세운 동명중학교에서 2년 동안 '교원급 교장'으로 교편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학을 배우고 중국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움으로써 그는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드물게 문무(文武)를 겸비한 항일투사가 되었다.

1920년대 중반 만주에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정립하면서 지역에 할거하여 각기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의부는 1925년 1월 통의부를 중심으로 길림주민회, 의성단, 서로군정서 등이 통합하여 조직되고 오동진·지청천·김동삼 등이 이끌었다, 신민부는 같은 해 3월 만주 영안현에서 청산리 전투 후 러시아 국경지방으로 이동한 북로군정서군 중 자유시로 들어가지 않은 김좌진 등이 중심이 되어 북로군정서의 후신으로 조직되었다. 참의부는 1924년 통화현에서 상하이 임시정부 직속군사조직으로 백광운·백시관·김소하 등이 군사책임자였다. 3부 모두가 겉으로 내세우기는 한인지역 자치단체인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무장전투 조직이었다.

김학규는 1929년 겨울 동명중학교 교편 생활을 마치고 흥경현 왕청문에 소재한 조선혁명당 및 국민부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임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혁명군 총사령부 부관장으로 활동하였다.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는 각기 별개의 조직이면서도 상호 연계성을 가진 민족주의계열의 무장독립운동 단체였다.

2년 후 김학규는 조선혁명군(조혁군) 총사령 양세봉 장군의 막료로서 참모장이 되었다. 1929년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통합하여 국민부가 결성되었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과 산하에 조선혁명군을 편성하고, 양세봉 장군을 총사령으로 임명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은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학규는 서로군정서에서 무장투쟁을 하였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로서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졸업생으로는 권계환·김동식·김우권·김철·김하성·김학규·박명진·백광운·백기환·신용관·오광선·이덕수·이병철·현기전 등이 있고, 북로군정서에서 활약한 졸업생으로는 강화린·김훈·박영희·백종열·오상세·이운강·최해 등이 있다. 이들이 훈련시킨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역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이 외에도 김경주·김종한 등 많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 이 전역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만주지역의 대한통의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 등 주요 무장독립운동 단체에서 활약한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는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²⁾ 김학규가 소속되었던 조선혁명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 독립을 완성함.
2. 노동자·농민의 민주정권을 수립함.
3. 대생산기관 및 금융기관 기타 일대(一大) 기업기관을 국유로 함.
4. 대소유의 토지를 농민에게 무보상 대여함.
5. 노동자, 농민에게 평행생활을 보지(保持)할 수 있는 노동시간과 임은(賃銀) 제도를 실시함.
6. 노동자·농민·기타 빈민에 대여하는 일체의 채권을 포기함.
7. 일체 잡세를 포기하고 단일 누진세를 실시함.
8. 부녀에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일체 권리 평등제를 실시함.
9. 실업·질병·양로·고아·재해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함.
10. 의무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일체 경비를 국가의 부담으로 함.
11. 세계 피압박 및 무산계급과 공동전선을 취할 것.
12. 우경향 부르조아지의 자치파를 배격함.³⁾

조선혁명군참모, 일본군과 교전

1931년 9월 18일 만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유조구의 만주철도를 폭파하면서 이른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중국의 항일운동이 만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일본의 전시체제로의 재편을 피하여 우선적으로 만주점령을 계획하고 있던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등이 꾸민 음모였다. 일제는 철도 폭파를 장학량(長學良) 군의 소행이라고 떠넘기며 독단적으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 곧 바로 봉천을 시발로 전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이듬해 3월 괴뢰 만주국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만주 전지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무렵 김학규는 조선혁명군(조혁군)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만주에 근거를 둔 중국의 동북의용군,

2) 김재승,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77쪽, 해안, 2002.

3) 『사상월보』57, 1939, 3, 306, 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과 대전차령전투』, 110쪽, 독립기념관.

구국군, 민중자위군 마점산(馬占山)·왕덕림(王德林)·소병문(蘇炳文)·당취오(唐聚五) 등이 항일전을 벌이자 당취오 부대와 연계하여 여러 차례 일군과 교전하였다.

국민당 특과원 왕육문(王育文)은 내가 신민현에서 공부할 때부터 중국 국민당 동북책임자 전공래(錢公來) 씨를 통하여 당적 관계로 일찍부터 피차간 친밀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인연으로, 내가 조혁군 참모장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은 직접 나에게 사신을 보내어 우리 조혁군과 당군(唐軍)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준 것이다.

나는 왕이 파견한 사신과 함께 1932년 4월 29일 당취오 군 사령부에 가서 당과 면담하고 금후 양측이 군사적으로 일치한 행동을 취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동시에 대일 작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⁴⁾

김학규와 당취오 중국의 동북의용군과 맺은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변도(東邊道) 일대 (즉 당군 관할지)에 조혁군의 활동을 정식으로 승인할 것.
2. 당군 관할 내에 예속하는 각급 관공서 및 민중은 조혁군의 활동에 관한 일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군사령부로부터 통령할 것.
3. 조혁군의 군량 및 장비에 관하여 중국 당국에서 공급할 것.
4. 일군을 향하여 작전할 때 쌍방이 호응 원조함으로써 작전의 임무를 완성할 것.
5. 조혁군이 일단 압록강을 건너 한국 본토작전을 전개할 때 중국군은 그 전력을 경하여 한국 독립전쟁을 원조할 것.⁵⁾

김학규와 당취오의 협정은 비록 일선 지휘관끼리의 협정이지만, 한중 양국 간의 항일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중 두 나라 의용군은 그 해 10월 중순까지 일본군과 200여 회에 걸쳐 교전을 하였다. 조혁군의 용맹은 널리 만주 전역에 알려지고, 이로써 만주에 거주하는 200만 교포들의 민족적 지위는 한층 제고되었다. 학규는 당시 32세의 청년장교로서 조혁군을 진두지휘하여 명성을 날렸다.⁶⁾

4) 김학규, 앞의 책, 586쪽.

5) 앞의 책, 586쪽.

6) 앞과 같음.

김학규는 양세봉 장군 휘하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조선혁명군 시절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혁명군은 1933년에도 요령민중자위군의 잔존 부대와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여러 차례의 연합전투를 치렀다. 특히 7월 8일 양세봉은 일부 부대를 거느리고 왕봉각 산하의 부대와 연합하여 신빈형성을 공략하여 한때 점거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선혁명군은 끊임없이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었는데, 1933년의 국내진격전은 10여 차례에 걸쳐 142명의 대원이 참가한 것으로 일제측 기록에 나오고 있다.⁷⁾

김학규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조혁군 총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전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군이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 중심세력이 붕괴되고, 당취오가 1932년 11월 단독으로 중국 관내로 들어가 장학량에게 의탁하고 말았다. 이어서 마점산·소병문·왕덕립 등도 차례로 관내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김학규는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 남경에 있는 김구가 중국 장개석의 원조에 따라 낙양군관학교 내에 한인청년훈련반(한청훈련반)을 설치하고, 의열단장 김원봉도 중국의 원조로 남경에 간부훈련반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은 연석회의를 열고 김구·김원봉 측과 협상하기로 하여, 만주 무장독립운동의 지원을 하도록, 김학규를 전권대표로 남경에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김학규는 참모장직을 사임하고 부인 오광심과 함께 남경으로 떠났다. 이로써 김학규의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정치통합운동과 광복군 참여

당시 남경에는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김원봉의 조선의열단, 윤기섭·이청천 등의 신한독립당, 김두봉의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의 대표부 등이 난립해 있었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후 중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김학규는 통합 회의를 추진하면서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동향을 보고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한 인력과 물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통합운동은 급속히 진

7) 강덕상·미촌수수, 『현대사자료 30』, 341쪽, 1976.

행되었다. 5당과 대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독립당 : 대표 김두봉·조소앙
한국혁명당 : 대표 최동오·김학규
조선의열단 : 대표 윤세주·진의로
신한독립단 : 대표 윤기섭·이청천
미주 대한인독립단 : 대표 김규식·신익희

1935년 7월 4일 5개 정당대표자회의는 민족혁명당(민혁명) 이름의 단일정당으로 통합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김학규는 통합신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민혁당의 핵심이 되었다. 민혁당의 간부는 다음과 같다.

중앙집행위원 : 김원봉·김두봉·김규식·최동오·김학규·신익희·윤기섭·이청천·성주식·조소앙·진의로·윤세주 등.
감찰위원 : 양기탁·김창환·이복원·신악·김창제 등.

민혁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김학규는 1936년 1월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 노산특별훈련반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장차 광복전쟁을 위해서는 최신 군사 교범과 전술이 중요하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1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남경으로 돌아왔을 때 민혁당은 사분오열 상태에 빠져 있었다.

흔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초기에는 외교론이나 실력양성론에만 치우쳐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1919년 12월 18일 발표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와 「동 임시육군무관학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군사적 광복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듬해 7월 교령 제7호로 「대한광복군 총사령규정」과 그 세칙을 공포한데 이어 1924년 8월에는 통수기관으로大本營의 직제를 발표했다.

또 임시정부의 외곽단체인 한국노병회는 1922년 10월 김구·여운형·이유필·조동호 등이 중심이 되어 조국 광복을 위해 향후 10년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노병(勞兵)을 양성하고 100만 원 이상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으로 항일 전쟁을 통해 국토수복을 목표로 다양한 준비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군무부장 노백린의 책임 아래 준비한 군사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군사상 수양과 경험이 있는 인물을 조사 소집하여 군사회의를 열고 작전계획을 준비하여 각종 군사직무를 분담 복무케 한다.

2. 러시아·중국 각지에 10만 명 이상의 의용병 지원자를 모집하여 부대의 편의성, 병사의 직무와 야학개설, 군인의 군사훈련과 학식을 높이는 등 군사교육을 감독케 한다.
3. 러시아·중국 각지에 사법부를 분치하여 응모한 병사를 통설 지휘하며 군사교육을 감독케 한다.
4. 군사적 기관을 조사하여 임정 군무부에 예속시킨다.
5. 국내 각지의 의용병을 모집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지 요새에 잠복시킨다.
6. 러시아·중국 각지에 사관학교를 설립, 사관을 양성한다. 이는 신흥무관학교의 건학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7. 미국에 청년을 선발, 파견하여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익히게 한다.
8. 내외에 모험 청년을 선발하고 작탄대(炸彈隊)를 편성하여 그 기술을 습득시킨다.
9. 중국·구미 각국에 교섭하여 무관학생을 파견한다.
10. 청년을 선발하여 포창술, 화차기관술 등 전시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케 한다.
11. 미국 등 외국에 교섭하여 군물(軍物) 수입을 준비한다.
12. 국내의 주요 지점에 무역상의 명의로 양식을 준비, 전시에 충당한다.
13. 군사선전대를 특설하고 선전방법을 강구하여 각지에 선전물을 적전하고 전투적 정신을 고취하여 무통일 무조직의 망동을 발생치 않게 한다.
14. 군법 등을 제정하여 군대의 질서와 기율을 엄하게 한다.⁸⁾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국노병회의 군사양성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력으로 조국광복을 쟁취한다는 정신은 항상 이어졌고, 이것이 중경에서 이루어졌다. 신흥무관학교의 교장 이시영, 교성대장 지청천, 교관 오광선·신팔균·이범석·윤경천과 김학규 등이 임시정부에 합류함으로써 임시정부의 군사적 광복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천되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대한제국 군대해산 33주년에 해당하는 날에 맞춰 창군되었으나 그 준비기간은 훨씬 소급한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김구가 장개석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광복군 창군 지원을 요청했다. 김구는 이 자리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2년 안에 일본, 조선, 만주 세 방면에서 폭동을 일으켜 일본의 대륙침략의 다리를 끊어놓겠다.”고 제안했다. 장개석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청하고 김구는 준비한 창군계획서를 보내주었다.

김구는 때마침 만주독립군으로 활약하던 한국독립군총사령 이청천을 비롯한 황학수·오광선·이복원·최용덕·김학규 등을 중국으로 초치, 광동에 있는 낙양군관학교 분교와 남경 중앙군관학교의

8) 박성수,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백산학보』3, 1967.

한인군관훈련반에 입교시켰다. 교육과정은 교육정도에 따라 단기(보통반)와 장기(특별반)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이들 졸업생이 1936년 현재까지 250명에 이르렀다.⁹⁾

한국광복군 공작대는 일본군에 징병되어 끌려온 조선청년들에게 한국어로, 일본병사들에게는 일본어로 만든 격문을 살포하였다.

조선동포들에게

왜적의 철책하에 압박받는 조선 민족이여!

왜적의 강박하에서 사선으로 나온 조선청년들이여!

제군은 야만적 강도 왜적을 위하여 가치 없는 육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독립의 기회는 왔다!

왜적은 이 침략전쟁에서 반드시 멸망한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찾기 위하여 반전·태업·파괴·암살 등으로 왜적을 타도하자. 조선의 청년아! 혁명정신을 부활하자!!

전조선에서 조직적 대혁명을 일으키자!!!

일본의 병사여!

제군은 일본군벌의 침략전쟁의 육탄이 되어서 무엇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인가? 제군의 부모 형제 처자는 기한 속에서 울면서 제군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제군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삼정(三井), 주우(佳友) 등의 번견인 일본군벌은 제군의 몸을 회적(灰籍, 유골재 상자)에 넣어서 군(君) 등의 고향에 보낼 것이다. 제군의 적은 군 등을 육탄으로 만드는 일본군벌이다.

일본의 병사여! 제군은 단결해서 일본군벌을 타도하여 일본 민중을 구하는 것이 실로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다. 군벌의 명령을 지키지 말라! 반전 투사를 지지하라! 일본군벌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군벌을 타도하라!! 혁명을 일으키라!!!¹⁰⁾

김학규는 광복군창설 직후 중국 국제방송을 이용하여 총사령부 참모의 자격으로 국내외 동포들

9) 『한국일보사 편』,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2, 198쪽, 1988.

10) 『독립운동사』6권, 204쪽.

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운동은 환경상 또는 모든 사정상 선전공작에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동정세가 널리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못하였고 일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운동의 결함이니, 우리는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널리 선전하여 여론과 동정을 많이 끌도록 하려 합니다.¹¹⁾

광복군 군사위원으로 활동

일제가 1937년 7월 7일 북경 교외 노구교의 군사도발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임시정부는 동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군무부장 조성환에게 군무부관할 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다. 군사위원회는 군사활동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등 모든 군사문제를 포괄하는 책임을 맡겼다.

군사위원회는 이청천·유동렬·이복원·현익철·안공근·김학규 등 직접 대일실전을 치룬, 군사에 밝은 6명이 선임되었다. 군사위원회 위원은 임시정부에서 직접 선임하였다. 1940년 9월 15일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창설위원장 김구는 <한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 창설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어서 9월 17일 중경의 가릉빈관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이 거행되고,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김학규는 광복군을 창설하는 핵심멤버가 되었다.

광복군 창설을 준비하고 교섭하는 일은 김구를 비롯하여 박찬익·이청천·유동렬·김학규·조경한·이범석 등이 맡았다. 당시 김구는 한독당 중앙집행위원장 겸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박찬익은 중국측 인사들과 비교적 폭넓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과의 교섭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청천·유동렬·김학규·조경한 등은 만주에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조직 운영하면서 대일 항전을 전개했던 군사간부들이었다. 이범석은 중국군에 복무하고 있던 중 여기에 참여하였다.¹²⁾ 창설시기 광복군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총사령 : 이청천

11) 김광재, 『한국광복군』, 187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12) 앞의 책, 54쪽.

참모장 : 이범석
 참모처장 : 채원개
 부관처장 : 황학수
 정훈처장 : 조소양
 군법처장 : 홍진
 관리처장 : 김봉준
 군수처장 : 차리석
 군의처장 : 유진동
 특무대 및 노사령(路司令)
 제1대 대장 : 이준식
 제2대 대장 : 김학규
 제3대 대장 : 공진원
 제4대 대장 : 김동산
 이상 4대 대원 60명씩 도합 240명
 제1로 동북사령 박대호, 제1로 현재 인원 5,800명¹³⁾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부는 “우선 제1기 임무로 장병을 급속 모집 단기 훈련을 실시하여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 항일전선에 참가한다는 방침하에, 군사특파단이 근거지를 마련해 놓은 서안으로 총사령부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1940년 11월 29일 서안으로 이전하면서 황학수가 총사령 대리가 되고 김학규는 참모장 대리가 되었다. 서안총사령부의 조직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안총사령부 잠정부서

총사령 대리 황학수
 참모장 대리 김학규
 참모조 조장 이복원, 참모 : 이준식·고운기
 부관조 조장 조경하, 조원 : 민영구·이달수·전태산
 선전조 조장 김광, 조원 : 지복영·조순옥·오광심

13)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편, 『국민정부한국독립운동사료』, 김광재, 앞의 책, 60쪽, 재인용.

편조조 조장 송동산, 조원: 조시제¹⁴⁾

광복군 창설에 핵심적 역할을 한 김학규는 제3지대 책임자로 임명되어 일본군 점령 지역과 인접한 안휘성 부양에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자신과 부인 오광심 외 5명의 소규모였다. 광복군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구역은 다음과 같다.

광복군 각 지대의 간부 및 활동구역¹⁵⁾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	제5지대
지대장	이준식	고운기	김학규	나일환
간부	노태준 안춘생 노복선 조인제 이석화 김자동	나태섭 고시복 지달수 유해준	오광심 신송식 신규섭 김광산 오영희 지복영	이하유 박기성 김동수 이해평
근거지	산서성 대동	수원성 포두	안휘성 부양	서안
활동구역	산서성 하남성	차하르성 및 하북성	안휘성 강소성 산동성 일부	하남성 하북성

김준엽·장준하 등이 만난 ‘김학규 주임’

김학규가 책임을 맡은 제3지대의 주둔지역은 국내와 가까운 산동반도였다. 하지만 일본군의 점령지역에서 이곳을 통과하기 어려워 산동성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안휘성 부양에 근거지를 설치하였다. 서주·귀덕·회양·제남·청도 등지가 관할지역이었다.

제3지대 전신은 광복군 징모 제6분처이다. 동처 주임위원 김학규는 단기 4252년(1919년) 만주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서로군정서 간부로서 항일투쟁을 하였으며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국민부 등 단체의 전권대표로 남경에서 대일전선통일동맹에 참여하였고, 한국광복군 창립당시부터 기간요원의 한 사람이다. 단기 4257년(1942년)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은 광복군 참모 제6분처 주임위원으로 김학규를 임명하였으며 간부 김광산·서파·오광심·박찬열·이복영 등을 인솔하고 하북 산동 안휘 등 제성에서 초모·선전·파괴 등 항일공작을 위하여 안휘성 부양에 근거를

14) 한시준, 『몽호 황학수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학지』 제31집, 578쪽, 단국사학회, 1998.

15) 앞의 책, 110쪽.

두고 불철주야 임무를 완수하여 수 백명에 달하는 애국청년을 초모하여 광복군 정예부대를 편성하였다.¹⁶⁾

김학규가 안휘성 부양을 초모 공작지역으로 선택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징모 제6분처의 공작지점은 산둥반도를 목표로 하였다. 산둥반도는 화북지역의 요충이자 국내와 만주지역의 교포들과 상호연락이 용이한 지점이었다. 또 그곳에는 김학규를 잘 아는 중국군 제51군의 우학충(于學忠) 장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산둥반도를 향해 서안을 출발한 김학규 일행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중간지점인 안휘성 부양에 정착하고 말았다. 이들이 부양에 도착했을 때, 일본군과 팔로군의 협공을 받아 대 타격을 입은 우학충의 제51군이 부양으로 철수해 있었다.

이로써 이들은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였고, 징모 제6분처의 거점은 안휘성 부양에 마련되었다. 당시 부양은 지형상으로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 있던, 그리고 일본군 점령지역과 근접해 있는 지역이었다. 때문에 적후에서의 초모공작을 전개하는데 있어 부양은 더 없이 유리한 지점이기도 했다.¹⁷⁾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가 중국에 파견되어 '탈출학병 1호'인 김준엽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곳은 김학규의 부대 한국광복군 제3지대였다. 김준엽의 기록이다.

우리가 감격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간 곳은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황포군관학교 후신)인데, 그 안에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이 특설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광반'이라고 약칭하고 있었다. 우리는 드디어 우리 독립군의 품안에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독립군인가! 나의 가슴은 감격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임천은 안휘성 부양현에 속하는 소도시인데 중국 제10전구(사령관은 李品汕장군) 관할지역으로서 제10집단군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임천 한광반엔 김학규라는 분이 주임으로 있었고, 이평산·진경성(일명 신송식)이란 두 교관이 주임을 돕고 있었다. 김학규 장군은 이 때 44세의 청년신사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품이었으며 군인이라기보다는 학교선생과 같은 인상을 받

16) 김승학, 『한국독립사』, 上권, 296~297쪽, 독립문화사, 1971(증보판).

17) 김광재, 『한국광복군』, 157쪽.

았다.¹⁸⁾

김준엽은 회고록에서 김학규의 독립운동 전력을 기록하면서, 한광반의 사력을 자세히 소개한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중국으로 파견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는 이들을 광복군으로 초모하는 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중국정부의 협력을 받아 중요한 지역에 '초모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김학규 장군이 광복군 제6초모 분치의 책임을 맡고 안휘성 부양에 도착한 것은 1942년 4월로서, 그는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지하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자발적으로 탈출하는 학병외에도 지하공작에 의하여 넘어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증가하자 김장군은 이곳 중앙군관학교 임천 분교에서 한국청년들을 광복군의 장교로 만들 계획 하에 중국측과 교섭한 결과, 우리가 도착하기 약 4개월 전에 특설된 것이 바로 '한광반'이었다.¹⁹⁾

김준엽의 글을 통해 '한광반'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하루의 일과는 중국 국기의 게양식과 하기식에 참가하는 것 이외에 하루 한 두 시간 정도의 도수제식 교련이 있었고 김학규 주임의 한국독립운동사 강의를 들었으며, 이평산 씨의 세계 혁명사라는 강의를 2,3일에 한 번씩 듣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어 원종일 편하게 노는 것이었다.(…)

김학규 주임의 '한국독립운동사'의 강의는 나에게서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었다. 우리 독립군이 만주에서 어떻게 싸웠으며 또한 광복군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정말로 소중한 소득이었다.²⁰⁾

1944년 여름 중국 서주(徐州) 쯤까다 부대에 예속되어 군병생활을 하던 장준하 일행이 일본군을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곳 역시 김학규가 주임으로 있는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였다.

우리가 떠밀려 들어간 곳은 중국 중앙군관학교 임천분교로서 그 안에 한국 광복군 훈련반이 특

18) 김준엽, 『장정(1)-나의 광복군시절』, 215~217쪽, 나남, 1988.

19) 앞의 책, 218쪽.

20) 앞의 책, 222~223쪽.

별히 부설되어 있었다. 이 훈련반엔 김학규라는 분이 주임으로 있었으며 이평산·진경성이란 두 교관이 주임을 돕고 있었다. 약 4개월 전에 설치되었다고 했다.

일본에 징병되어 중국지역으로 파견오는 한국청년들의 수가 많아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작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 총사령부로부터의 명을 받은 김학규 씨가 안휘성 부양이란 곳에 주재하면서 약 1년 전부터 각종 공작을 폈으며, 탈출학병 외에도 한국청년들을 모병하여 상당수가 되자 이곳 임천분교에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요청하여 특설한 것이 이 훈련반이었다.

그동안 한국청년은 80여 명이나 집결하였다. 계속적인 모병공작과 격증하는 탈출학병으로 해서 훈련반은 열을 띠었다.²¹⁾

장준하와 그 동지들은 임천분교에서 몇 달 동안 기거하면서 훈련을 받았다. 김학규는 탈출해온 한국청년들에게 독립운동사와 중국의 정세 등을 가르쳤다. 장준하는 이 부대에서 김학규를 처음 만났을 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얼마 뒤에 우리는 주임에게 신고 겸 인사를 하러갔다. 주임의 인상은 펴 좋았으나 주임실의 그 초라함은 우리를 상심시켜 주었다. 아무리 남에게 얹힌 덧살림이긴 하지만, 하나의 초라한 토막 방이어서 80여 명 한국청년들의 주임실로 사용되는 것은 생각을 깊이 부어주는 새로운 사실이었다.

우리들의 내무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임은 한 마흔 남짓한 중년의 신사로 온화하고 인자한 인품을 풍겨주었고, 나는 믿음직한 인물로 속셈을 치고 있었다.

“얼마나 수고했소…… 동지들, 참 장하고도 장하오.”

그는 극구 우리를 칭찬해 주었고 우리의 용기를 치하해 주었다. 이곳서 우리는 ‘동지’라는 접미 호칭을 처음 들었다. 우리에게겐 무엇이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²²⁾

환영식이 열렸다. 김학규는 의기에 넘치는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다.

석탄 백탄 타는 데 연기가 펄펄펄 나고요

21) 장준하, 『돌베개-장준하문집』2, 98쪽, 사상, 1985.

22) 앞의 책, 99쪽.

이 내 가슴 타는 덴 혁명의 불길이 오른다
에헤야 에헤야 혁명의 불길이 오른다.
사쿠라 발이 떠나서 태평양 보탬이 되고요
무궁화가 피어서 삼천만 기쁨이 되누나.²³⁾

광복군 3지대장으로 맹활약

일본군을 탈출한 한적 청년들은 광복군에 편입되어 김학규의 지휘 아래 소정의 훈련을 받고 각기 지원에 따라 임시정부와 총사령부로 떠나고 김우전 등 12명이 부양에 잔류하였다. “이들이 제3지대 창설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은 본부요원과 신입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적 점령지역으로 나가 초모공작을 전개하는 지하공작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초모공작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갔다.”²⁴⁾

김학규는 1941년 봄부터 1945년 7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때까지 5년 동안 주로 부양을 중심으로 특무공작을 벌였다. 특무공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전공작이다. 적치하에 있는 한국인들은 일제의 허위선전에 기만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인들에게 연합국의 승리와 임시정부 광복군의 사정을 선전한다.

둘째, 정보공작이다. 적의 정보를 탐지한다.

셋째, 적 후방에 있는 인력·물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넷째, 사보타지 공작이다.

다섯째, 적에 대한 공포공작이다. 적의 사기를 저상시키고 민중의 사기를 진작시킨다.²⁵⁾

김학규는 실제로 적 후방에 지하공작원을 밀파하여 선전 작업을 진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중국군 사위원회와 근명 미군 제14항공사령부에 제공하였다. 또 각종 선전 비라를 살포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일본군에 징병되었던 한국 청년들에게 탈출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렇게 하

23) 앞의 책, 100쪽.

24) 김광재, 앞의 책, 159쪽.

25) 김학규, 앞의 책, 17쪽.

여 김학규가 담당하는 구역인 부양에는 50여 명의 탈주 한인 병사들이 넘어왔다.

김학규는 이들에게 정신교육과 기술 무장이 급선무임을 판단하고 1943년 임천(臨泉)에 설치된 중국중앙훈련단 임천분단 내에 한국광복군 훈련반(한광반)을 설치하였다. 제1기에 50여 명을 훈련하여 졸업생 절반과 기타 인원 등 50여 명을 중경의 임시정부로 보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임시정부 직원으로 채용되고 일부는 서안(西安)에서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이 미국 OSS부대와 합작하여 경영하는 훈련반으로 편성되었다.

제1기의 남은 요원과 제2기, 제3기 훈련은 부양 제3지대 본부에서 실시하여 짧은 기간에 일본군을 한국광복군으로 개조시켰다.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은 대부분 적 후방으로 파견되어 지하공작을 실시하였다.²⁶⁾

김학규는 부양에서 이곳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제14항공대 책임자 비치 대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협력하였다. 비치의 소개로 제14항공대 사령관 시노트 장군과 OSS부대 책임자들과 만나 대일 첩보활동과 후방교란 작전을 전개하였다. 시노트의 주선으로 미군 비행기로 중경과 곤명을 왕래하면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김학규는 곤명 OSS와 협력하여 한국인 훈련반을 설치한 일이다.

나는 1945년 5월에 비치 대위와 함께 곤명에 가서 시노트 장군과 면담하고 또 OSS기관에서 약 1주일간 유숙하면서 그 기관과 더불어 공작 연락에 관한 일을 상확(商確)하였다. 나는 그동안 OSS막료들과 범수(凡數) 10차의 회합을 가졌다. 그때 나를 친히 접대해 주던 스미스 중령이 아직도 기억된다.

내 일을 맡아 취급한 분은 한국어에 능통한 웬스 대위였다. 양측이 접한 결과, 한미 양측이 합작하기 위해 먼저 한국청년에게 기술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때 이 훈련종목은 적후인 한국 본토에 잠입하여 정보공작할 정보원을 양성함이 첫째요, 둘째로서는 만일 미군이 필요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상륙작전을 하게될 때 한국 내에서 미군을 호응해 줄 적후 파괴 및 게릴라 발동을 전제로 그에 대한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 등이었다.

정보원에게는 무선전의 기술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그리고 3지대로부터 한인 연락원 약간명을 OSS사령부에 파견하여 일면 나의 공작과 연락을 지으며 일면 OSS사령부 공작에 협조해 주기로 하고, 우선 연락원 김우전 대위를 파견하였다.²⁷⁾

26) 앞의 책, 19쪽(요약).

27) 앞의 책, 19~20쪽.

미군의 협력으로 훈련반은 안휘성의 임시수도 입육(立煜)에 설치하였다. 그곳에 미국 제14항공대의 연락침첩이 있었기 때문이다. 드르먼드 대위가 책임자였다. 학생은 약 20여 명이었는데, 주로 무선 연락 통신기술을 배우면서 국내로 침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학규와 미제14항공대 사령관 첸놀트 장군은 <한미군사협작 합의사항>을 체결, 본격적인 한반도에 진격하여 일제를 추멸할 준비를 갖추었다.

1. 한미 양군은 공동의 적인 일본군을 박멸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여 공동작전을 전개한다.
2. 한국광복군은 미군으로부터 무전기술과 기타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고, 적진 한반도에 잠입하여 연합군 작전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한다.
3. 미군은 공동작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 기재 및 군수물자를 한국광복군에게 공급한다.
4. 미군은 한국광복군에게 육·해·공 교통통신의 편의를 제공한다.
5. 기타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상호 지원한다.
6.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기 상부의 재가를 받고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데 상호 적극 노력한다.²⁸⁾

제3지대의 초모, 정보 활동 중에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몇 사례만 소개한다.

1943년 조성산을 비롯하여 조동린·윤창호·김광선·박해근 등이 일본군 점령지로부터 속속 탈출하여 동처에 가담하였다. 박해근은 김학규의 지시에 따라 적후방 공작 지령을 받고 귀덕·서주·개봉 등지에서 초모 반일 선전유격대 첩보를 전개 중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0년 형을 언도 받고 북경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해방 후 석방되었다.

조동린·김기옥은 적후 지하공작 특파원으로 천진·북경 등지에서 청년동지 10여 명을 초모공작 중 조동린은 1943년 8월 5일 일군에게 체포되어 북경형무소로 압송 수감되었으며 해방 후 석방되었다.

화중지구 특파원 윤창호는 서주·제남 일대를 누차 왕래하면서 초모·선전첩보 등 공작을 적극 추진하고 수 십명에 달하는 한적 사병 및 교포 청년을 초모하여 본처에 후송하였으며 1943년 3월 중앙군 황학수 장군 휘하 유격대 소속 진강천 상위 등 3명과 모의하고 귀덕역 구내에 정차 중

28)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6, 605쪽.

인 왜적 탄약 수송열차를 시한폭탄 장치로 폭파시키는 등 전과를 거두었다.²⁹⁾

김학규의 징모 6분처의 초모, 정보활동 등은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다음은 임시정부 군무부의 보고서다.

부양 초모위원 김학규 부(部)의 성적이 최가(最佳)하여 51명의 제1기 한광반 필업생을 산출하였고, 지금 부양에 50여 명이 주유(住留)한 외에 내지 만주 윤함구(倫陷區) 등 각 주요 거점에 50여 명의 공작 동지가 선전 초모 등 공작에 적극 노력 중임.³⁰⁾

당초 6명으로 시작한 징모 제6분처는 3년여 동안 160여 명의 인원을 초모하여 광복군 전체 초모 인원(1945년 3월말 현재) 339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징모 제6분처의 인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자, 총사령부에서는 징모 제6분처를 제3지대로 개편하였다. 총사령 이청천은 군무부 및 통수부에 제3지대 편설을 요청하였고, 통수부 판공청에서는 제3지대의 편설을 승인하였다”³¹⁾

통수부 판공청의 제3지대 편설 승인서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제10전구 지대에 김학규를 초모원(招募員) 명목으로 파견한지 3년 유에 비용은 공작할만치 지급 못하였지만, 이미 초모청년이 70여 인이요, 내외 각지에 연락과 선전과 초모 등 공작이 날로 전개되어감에 따라 군사기지가 있어야 할 필요가 많으므로 총사령의 요구에 의하여 광복군 부대 편제에 있는 제3지대를 편설하고 지대장은 김학규를 임명하기로 하였음.³²⁾

광복군 제1,2지대가 기존의 병력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면 제3지대는 순전히 김학규의 노력으로 편설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 성립식은 1945년 6월 30일 부양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일제항복 3년 후 귀국, 이승만에 투옥당해

29) 김승학, 앞의 책, 297쪽.

30) 「군무부공작보고서」(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826쪽, 김광재, 앞의 책, 149쪽 재인용.

31) 앞의 책, 160쪽.

32) 「통수부사무보고」(국회도서관),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821쪽.

본격적인 대일전의 준비 중 8월 15일 일제의 항복선언으로 한국광복군은 모든 작전계획이 중지되었다. 김학규는 8월 19일부터 중국 각지에 특파단을 파견하여 교민의 안전과 한적 장병의 보호에 나섰다. 9월 12일부터는 중국군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지원하였다. 중경의 광복군 총사령부가 남경으로 이전하면서 제3지대는 본부요원으로 상해에 판사처를 조직, 김학규는 판사처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와 마찬가지로 광복군도 '군의 편제'로 귀국을 불허하고, 중국 국민당정부도 광복군의 중국내의 확군활동을 금지하였다. 광복군은 일제와 치열하게 싸우고도 승전군의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임시정부, 교민과 함께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김학규는 주상해판사처 주임으로 임명되어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3만여 명의 교포를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데 전력하고, 1946년 9월에는 김구의 한국독립당 만주특별당 부위원장에 취임하여 교포 1만 2천여 명을 천진에서 귀국시켰다.

김학규는 1948년 4월 환국하여 한독당 조직부장으로 정치활동을 하던 중 1949년 6월 26일 이승만 정권의 김구 암살사건의 배후로 몰려 수감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김구 암살을 한독당 내분으로 몰기 위해 김학규 등을 제물로 삼았다. 평생을 조국광복을 위하여 독립운동의 대부분을 무장투쟁으로 일관해온 그가 해방된 조국에서 엉뚱하게 존경하는 김구 주석의 암살 배후라는 절통하는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1년여 만에 출옥한 김학규는 은둔생활을 하던 중 4월혁명과 함께 재건 한독당 대표위원에 피선되었으나 옥고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67년 9월 20일 향년 68세로 서거하였다. 파란많은 그의 생애는 20세기 한민족의 고난과 모순을 집약해 보여준다.

김학규는 「30년대 한국혁명운동 재중국동북」 과 『백파자선진』 그리고 미간행으로 김구 암살 배후로 몰려 옥고를 치른 후 쓴 「혈루의 고백」 이란 증언록을 남겼다. 이 원고는 김학규의 손을 떠난 후 김구 암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4~11절 부분이 망실되었다. 손 모씨의 소행으로 알려진다.

「김학규의 재만 무장투쟁과 한국광복군 활동」에 대한 토론문

김광재(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오늘 김삼용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의 글에 대해 논평을 받게 되는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께서는 최근까지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인물 평전을 출간하셨거나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이회영, 신채호, 김원봉, 안중근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선생님의 붓끝을 통하여 그 일생과 활동이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대사까지 합치면 수십 종의 인물 평전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필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일련의 독립운동가 평전들이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를 대중화하는데 큰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오늘 발표문의 주인공인 김학규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사연구에서도 만주 독립운동이나 광복군 연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평전은 고사하고 변변한 단독 논문 한 편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독립운동사 연구에서 많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김학규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선생님의 글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즉 김학규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김학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나 인물 평전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논평자 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글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해되던 김학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학규는 만주 및 관내지역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청천 등과 더불어 몇 안 되는 군사지도자였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김학규를 한국독립운동가 중에서 문무를 겸비한 비운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하셨습니다. 논평자도 그동안 김학규의 사진을 접할 때마다 두꺼운 검은 안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인이지만 문인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김학규의 일생과 독립운동이 선생님의 평이한 필치로 알기 쉽고 생생하게 복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논평자는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의 글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도 느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생님은 김학규에 대해 아직까지 변변한 논문 한 편이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소회를 피력하셨습니다. 자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요. 논문 말미에서 이승만정권시기 김학규가 김구암살사건의 배후로 몰려 수감되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지금까지 김학규에 대해 전혀 연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김학규가 출옥 후 <혈루의 고백>이라는 증언록을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항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증언록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가 김학규의 손을 떠난 후 김구 암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4-11절 부분이 망실되었으며 이것은 손 모씨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해서 여운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손모씨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원고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1934년 김학규가 만주에서 관내지역으로 철수하였는데, 발표문에서는 “이로써 김학규의 만주지역 무장투쟁은 마무리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 김학규가 관내지역으로 간 것은 관내지역 독립운동진영의 지원을 요청한 다음에 다시 만주로 돌아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관내지역에서 조선혁명당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되어 관내지역에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